



서울大同窓會報

총동창회 지표 : 참여·협력·영광

<http://www.snua.or.kr>

2003년 5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302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발행인 林光洙 / 편집인 孫一根 / 편집주간 許 鎭 /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①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FAX : 703-0755



본지 林光洙회장(左)이 언론 창달과 모교 및 동창회 발전지원을 위해 창립된 관악언론인회 초대 安秉勳회장에게 회기를 전달함.

(커버스토리 4면)

서울대 출신 언론인들 모였다!



『가슴마다 심스러운 이념을
붓고 이 세상의 사는 진리 찾는
이 길일...』

2003년 4월 23일 오후 7시, 대
경로 프레스센터 20층에서는 우렁
찬 기가가 울려 퍼졌다. 언론계에 흩어진 동문들을 한
자리에 모아 관악언론인회를 탄생시키는 순간이었다.

이제 회합의 첫머리 머리가 된 서울대 OB들, 삼기된
얼굴에는 학창의 추억을 더듬는 표정이 역력했다. 불
현듯 1960년 4월 19일 그날이 떠올랐다. 자랑스런 새
교복을 입고 동승동 문리대 교정에 들어선 그날. 『우
리 모두 보일시다』 한마디에 李萬甲교수의 사회학개
론 시간은 삼시간에 깨지고... 우리 시대를 휩쓸었던
혁명과 혼란, 쿠데타, 긴급조치, 검거선봉, 자욱한
최무탈거리, 민주화의 스크린과 함성... 대충 이런 것
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물론 그 이전에는 서울대
국대인의 진풍, 6·25 전야의 비극, 전쟁 속의 파란갑
퍼스 등 고난의 행군도 있었을 것이다. 진정 서울대가

역사와 함께 왔고 또한 역사를 이루어 왔구나 하는 자
부심을 느꼈다. 동승동에서, 청량리에서, 수원에서
그리고 드넓은 관악캠퍼스에서 우리 모두는 너무나 뿌
듯한,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 눈물겨운 『역사』를 만들
어 왔다.

우리 언론계 동문들은 사실 너무 늦게 이런 모임을
만들었다. 참 모이지 않는 서울대 출신들의 기질 때문
이었다. 『서울대』가 모인다고 하니 주위의 시선도 예

이제는 만나야 한다

사롭지가 않았다. 『저 사람을 무슨 일을 내려고...』하
는 시선도 있었다. 그래서 주저하는 중문들도 있었을
을 나는 만나.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시선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나
는 일조차 파해간다면, 이것은 잔인한 처사다. 다른
대학은 만나는데 서울대는 왜 안되냐고 묻기 묏을 뵈

요까지는 없다. 『VERITAS LUX MEA』의 배지를
가슴에 달고, 같은 보금자리에서 꿈을 키우고 역할을
나누며 때로는 시대를 고민했던 우리들, 이제는 만나
야 한다. 우리의 『만남』은 그 자체로서 소중하다.

모교 鄭秉勳총장은 축사에서 『국민들은 사회의 켜
서인 언론인에게 변화의 정체를 파헤치고, 그 연원을
밝히며, 변화의 말미에 도달할 궁극적 모습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모임이
단순한 相見의 차원을 넘어 이런데까지 미친다면 더더
욱 좋은 일이다.

모교 출신 2천5백여 언론계 건우들이여,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만남을 비켜가지 마시다. 비록 그 시절
마로나예의 그늘이 아녜지언정, 드넓은 관악의 숲이
아녜지언정, 소주 한잔 기울일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나뵈시다.

주최위원장으로 產苦를 치른 南仲九선배, 수고 많
았습니다. 冠育會를 이끌어 갈 초대 회장 安秉勳선배,
축하합니다. (煥)

만든 논설위원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崔基九, 李炯均, 南仲九, 金鎮錫, 金好俊, 宋鎮赫, 丘月煥, 洪性萬, 朴明珍, 李成俊, 安炳燦, 李元龍, 安國正,
사립 李慶衡, 金鍾勳,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嚴基永, 朴時龍, 姜天錫, 朴聖姬 편집장 安興燮 편집기자 朴亨宇, 表善賢, 鄭瑛錫 광고부장 金千鶴

「참 스승을 찾습니다」해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언론기관을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캠페인을 펼친다.

스승 찾아뵙기, 안부편지 보내기, 위로음악회, 백일장, 체육대회 등 다양하고 부질없는 행사도 열리고 이벤트 상품과 특별 카드까지 등장한다. 범국민 스승존경운동이 있는가 하면 일부 동창회에서는 모교에 동상을 건립하거나 유교집을 발간하기도 한다. 병중에 있거나 퇴직한 교사들을 위로하는 카네이션 달아주기에서 비롯된 스승의 날 행사가 이렇게 발전해온 것이다. 스승의 날을 따로 두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한다. 이웃 일본에도 스승의 날은 있지만 우리보다는 훨씬 조용하게 지낸다고 한다. 다소 지나치다고 하는 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회에 기여한 교육자들의 공적에 견줄만한 조금쯤 요란하다고 해서 탓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런 잔치 분위기에 교육계 스스로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 기간제 여교사의 처우 시정 문제가 한 초등학교 교장의 자살사건으로 불거지고 이를 둘러싼 유족과 전교조, 전교조와 교장단, 전교조와 학부모간의 대립으로 옮겨가면서 오랜 골이 더저듯 온갖 교육계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초·중·고교 교장협의회는 전교조의 무소불위한 불법 간섭이 자살 동기가 됐다고 주장, 1만3천여 전국의 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교조를 규탄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전교조는 교육계의 잘못된 관행과 그로 인한 불행한 대립의 결과이지 자



두 얼굴의 스승



洪 萬
前경향신문 사장

신들의 잘못이 아님을 들어 보수수구세력에 맞서 강력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교장의 유가족과 전교조의 맞고소에다 전교조의 교장선출보직제 제안 등 사태는 범정공방과 장외대결, 교육계의 해게모니 정찰전으로까지 확대될 기세로 교육계의 공교위가 운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이진투구가 학부모들의 눈엔 어떻게 비칠까. 본연의 임무인 교육은 뒷전으로 미뤄 놓은 제 사신들의 주장만을 앞세운 정치투쟁, 밟고 밟고 행거기에 비쁜 모습에 다름이 아닐 것이다. 결국 교육계에 대한 불만만 키울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현실적인 교육여건은 척박해지고 있어 교사들의 설자리는 자꾸 좁아지고 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사교육이 만연하고 심지어 교육 엑스터너스, 교육離敎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 아닌가. 더 이상 두 집단간의 싸움이 계속된다면 스승의 날이 교사성토의 날로 바뀔지 모른다.

이제라도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정부도 교단의 화합을 위해 제 역할을 해야 마땅하다. 여기서 참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참인간부터 돼야한다는 성현의 말씀이나 스스로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페스탈로치의 묘비명을 떠올리는 것은 사치스런 얘기일까. 그

래도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이 와중에도 묵묵히 師道에 전념하는 참스승들이 많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본보 논설위원)

동문필

점진적 개혁하되 국민의 공감 얻어야

이러고 전제가 끝나면서 국제적 갈등이 이제 조금 가라앉고 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질서 재편작업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세계적 불안은 지금부터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북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이것이 또 어떤 불안을 우리들에게 가져다줄는지 모른다.

이러한 외부로부터 오는 불안도 심각하지만 이것보다 더욱 심각한 불안은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라 생각된다. 변화하는 새로운 외부환경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할

데라도 혼돈 그 자체이다. 20대 대졸 실업률이 그 어느 때 보다 높고, 수출실적은 떨어지고, 불가상승률이 일한 국민의 생활을 불안케 하는 등 경제적 불안이 심각한 때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고 대미관계, 대북관계, 노동관계, 언론관계 등에서 혼선을 야기함으로써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외국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침입이 문제가 되기 시작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한국사회에 불안이 없을 때,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때 국내외 기업인은 활발한 투자를 하면서 기업을 살려나갈 것이고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소비생활을 할 것이며, 이것은 곧 우리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이 정권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경제적 기조를 흔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점진적인 정치적, 사회적 개혁을 하되 필요한 개혁이라면 서서히 국민적 공감을 얻어 착수하는 노련함을 보여주기 바란다. 미래가 예견되는 불안은 참을 수 있지만 미래를 예견할 수 없는 혼돈에서 오는 불안은 참기 어려운 것이다.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었다면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집약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나가면서 추진해야지 권력욕심부의 일방적 결정이나 장관 개인의 소신으로 추진한다면 이것은 많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정책의 미숙함이 우리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겠다.



金 一 鐵
(57년 文理大卒)
모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는지를 결정하는 정치권력의 메커니즘에 대한 불안이다. 과거 반정부 운동권 세력들이 대거 참여해 만들어진 노무현 대통령 정권은 기존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대거 개혁하고 싶어하면서 많은 파문을 야기하고 있다.

대미관계, 대북관계, 재벌기업, 노사관계, 언론관계, 교육정책 등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를 계획하고 있어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다. 이 불안감은 이 정권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모르겠다는 것에서 온다. 여태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위험한」 선까지 나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다.

이런 정권의 핵심을 이루는 사람들이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냐 우리는 모른다. 그리고 새 정권이 보여준 여태까지의 행태는 새 정권의 시작기간을 고려하

모교 의대 盧東榮·河圭璧 교수

「한국의 최고 명의」에 선정



盧東榮 교수



河圭璧 교수

최근 국내 최대 의료 포털인 「비닷컴(be.MD)」과 월간잡지 「에퀴타블」이 공동으로 기획한 「한국의 최고 명의」에 유방암, 우울증 분야 최고 명의로 모교병원 외과학교실 盧東榮(81년 醫大卒)교수와 분당 모교병원 신경정신과 河圭璧(86년 醫大卒)교수가 각각 1위로 선정됐다.

「비닷컴」은 유방암, 갑상선, 우울증 등 한국인에게 발병률이 높고 치료에 관한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병 30개를 선정, 매달 3개씩의 질병에 대해 자체 회원 의사들에게 전자메일과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해왔다.

첫 회에서는 유방암, 우울증, 라식 등 세 분야에서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 친지들에게 각 질병에 대해 권하고 싶은 의사 5명을 추천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盧東榮·河圭璧교수 등 순위별로 총 30명의 의사가 소개됐다.

유방암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盧東榮교수는 매년 3백여 명이 넘는 유방암 환자를

수술하는 것 외에도 유방암의 세포 및 분자 연구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해외 SCI에 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미국암연구학회(AACR)와 미국유방암학회(ASBO) 회원이기도 한 盧교수는 2001년 Organon International로부터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우울증 분야의 1위를 차지한 河圭璧교수는 모교병원 외과학교실 유방암 전문

의사로서 유방암 전문의로서 30여 년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유방암의 진단, 치료, 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분장암의 악성종양과 뇌종양신경리 관련 연구에서 주목받는 젊은 연구자이다. 河교수는 전신화인지는 검사실을 개설 운영하면서 인지기능평가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왔다. 현재 대한우울조울병학회 기획이사, 대한정신약물학회 국제이사를 맡고 있으며 정신의학 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河교수는 2003년부터 분당 모교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신경정신과장으로 진료와 연구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전자의무기록 개발팀장을 맡아 디지털 병원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제13회 호암상 수상자 발표

과학·공학·의학상 동문 선정



차현규 교수



金用民 교수



金城光 교수

호암재단(이사장 李賢宰·53년 慶大卒)은 지난 4월 8일 2003년도 제13회 호암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날 과학상에 허버트 차현규(90년 自然大卒)교수, 공학상에 위성탄대 金用民(75년 工大卒)교수, 의학상에 유태대 金城光(63년 文理大卒)석좌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예술상은 영화감독 林權澤씨, 사회봉사상은 요심의원 鮮于勝植원장이 받게 됐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1억원의 상금과 순금메달이 부상으로 주

어지며 시상식은 오는 6월 3일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호암재단에 따르면 과학상 수상자인 차교수는 1나노미터까지 접근시킨 두 금속 전극을 분자 1개(바나듐)로 연결시킬 경우, 트랜지스터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분자 트랜지스터의 가능성을 제시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특히 차교수는 역대 호암상 수상자 중 최연소자라고,

공학상 수상자인 金교수는 동영상과 고품질 음원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영상처리 칩과 멀티미디어 디지털 신호처리기(미디어 스테이션 5000)를 개발, 펜티엄 CPU(중앙처리장

치)와 NT 운영시스템으로도 슈퍼 컴퓨터급의 영상처리를 가능케 했다.

의학상 수상자인 김석좌교수는 기능성 생체분자 물질을 개발, 제대 대사장애에 따라 약물 전달 양을 조절하는 치료용 유전자 전달물질로 활용되도록 했으며, 혈액응고 방지 고분자도 개발했다. 지난 83년 세계 최초의 인공심장 이식 수술에 사용됐던 인공심장에도 金교수가 개발한 혈액응고방지 고분자가 활용됐다.

호암재단은 국내외 각계 주요 기관 및 권위자들로부터 추천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4개월간에 걸친 심사위원들의 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먼저 지난 90년 호암상 제정 이후 지금까지 모두 64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慶)

지방분권·균형발전촉

민간위원에 동문 16명 위촉

대통령 직속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成契康·77년 社會大卒)는 지난 4월 8일 민간위원 26명을 위촉했다. 이중 모교 출신은 16명으로 나타났다.

두 위원회는 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 모교 행정학과 鄭用德(73년 慶大卒)교수, 金敏鎔(73년 慶大卒) 前산림청장, 元惠榮(71년 師大)부천시장, 한국개발연구원 柳一範(81년 社會大卒)교수, 송상대 李鎭厚(75년 慶大卒)교수, 한국전산원 徐

三英(75년 行大院卒)원장, 서울산업대 南宮憲(76년 社會大卒)교수, 金孝鎔(72년 商大卒)국회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 한국과학기술원 尹淨純(77년 社會大卒)교수, 반세기기업협회 張興淳(44기 AMP)회장, 삼성종합기술원 孫郁(67년 工大卒)원장, 동아대 金敏男(78년 新大院卒)교수, 대한삼총회의소 金孝成(65년 法大卒)부회장, 전남대 宋仁城(75년 環大院卒)교수, 유한킴벌리 文國模(77년 經大院卒)사장, 한국개발연구원 朴秉錫(72년 商大卒)선임연구위원.

동창회보 PDF CD-ROM TITLE 보급 안내

<창간호부터 지령 300호까지>

서울대학교 동창회보 지령 300호를 맞이하여 1976년 창간호부터 2003년 3월 300호까지 4,800페이지 분량의 동창회보 내용을 담은 기념 CD-ROM TITLE(한정판)을 제작하였습니다.

지면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울대 동창회보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기사 검색은 물론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 제작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일반원권 지료용지를 CD-ROM TITLE과 함께 발송할 예정입니다.

※ 별도로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과 온라인으로 송금하신 분은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397-01-004664 조흥은행(금백 일반회계) 예금주: 서울대학교동창회

Tel: (02)702-2233 Fax: (02)703-0755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사무처



「관악언론인회」 창립총회 대성황

초대 회장에 安秉勳동문 선출

매년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시상키로



인간적인 유대감과 어우러져 우리 사회를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하고 '언론 자유의 지평을 넓히고, 사회의 공기가 되려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모교 鄭憲燾총장은 축사에서 '동문 언론인들은 변화의 격랑 속에서도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위대한 고足を 감수하며, 한국의 언론을 앞장서 이끌어온 견인차들'이라며 '사회'의 그늘진 곳에 대해 갖고 있는 연민과 사랑을 모아 광명의 세상으로 자유를 역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찬에 앞서 본회 金在淳 명예회장은 건배사를 통해 '동문 언론인들은 권력을 이루하지 말고 대중에 성실하게 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金在淳 명예회장, 林光洙회장, 孫振상 임무회장, 尹勳勳·鄭宗澤·孔大植·洪性大부회장, 朴美俊간사, 李世賢사무총장, 재단법인 관악회 明泰泰·金秉勳·鄭八道이사, 미대동점회 李龍吉회장, 사법대동점회 辛東一회장, 수원지부 俞東植회장, 부천시부 金聖又회장, 광역지부회 曹善熙회장, 본교 金哲珠·朴世熙·林炯하·李炯均·南仲九·金鎮河·金俊浩·丘月煥·朴明珍·李成俊·安國正·李

전·현직 동문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악언론인회'가 지난 4월 23일 오후 7시 한국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본회 임원·논설위원, 언론사 전·현직 대표,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관악언론인회는 신문, 방송, 통신사 전·현직 언론인과 언론·홍보 분야 학계 및 단체 회원들의 모임으로 회원은 2천5백여 명에 이른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李昌炫(86년 農大卒)교수와 俞雅雅(89년 社會大卒)前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창립총회에서 金仁奎(73년 文理大卒·KBS 뉴미디어본부장)간사장이 지난해 7월 발기인 모임부터 창립까지 9개월 동안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 南仲九(64년 文理大卒·중앙일보 21세기 문화연구소장)주비위원장의 진행으로 발기인과 내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관악언론인회 정관과 「서울대 언론인 대상」 규정을 심의, 채택했다.

임원 선출을 통해 초대 회장에 조진일보 安秉勳(61년 法大卒)부사장을 선출했으며, 모교 언론정보학과 朴明珍(69년 文理大卒)교수와 SBS 安國正(70년 文理大卒)편성본부장을 감사로 선임했다. 그리고 고문과 부회장 등의 임원 선출은 안희정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안희정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모교 출신 언론인들에게 반세기 가까이 지나도록 진폭모임 하나 없이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없게 생각했다」며 「각계 일로, 언론사 전·현직 대표를 고문으로 모시는 작업과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시상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악언론인회는 2004년 2월 정기총회부터 매년 언론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동문 언론인을 선정한 「서울대 언론인 대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관악언론인회의 출범을 통해 동문 언론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며, 동문 언론인들의 탁월한 역량과 덕성이

林光洙회장 祝辭

존경하는 모교 鄭憲燾총장과 관악언론인회 安秉勳 초대 회장님! 그리고 관악언론인회의 주역인 2천5백여 동문 언론인 여러분! 오늘 동문 언론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지원과 동창회 활성화를 지향하는 관악언론인회가 출범하게 된 것을 20층 문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지난해 7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관악언론인회 창립을 위해 노고한 이까지 없으신 발기인과 南仲九주비위원장을 비롯한 주비위원, 그리고 각 언론사와 지역의 간사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관악언론인회가 지향하는 우선 동문들의 자율적, 자발적 결속을 통해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일조를 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교는 21세기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명실공히 세계적인 대학으로 응징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교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동문 언론인들의 역량과 힘이 절실한 때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관악언론인회는 동문 언론인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네트워크(Network)와 기능을 담당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세월 우리 동문 언론인들은 사회 발전과 언론 문화 창달을 위해 개별적으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 관악언론인회의 출범을 통해 동문 언론인들은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탁월한 역량과 덕성은 인간적인 유대감과 어우러져 우리 사회를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사상가 John Milton은 "나에게 어떤 자유들보다 암시에 따라 자유롭게 알고, 말하고, 주장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말로 언론 자유를 역설했습니다. 관악언론인회의 출범은 Milton의 경구를 실천하여 언론 자유의 지평을 넓히고, 사회의 공평이 되려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관악언론인회 창립을 계기로 여러분이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주도하는 동문, 더 나아가 역사 앞에 당당한 언론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된 것입니다. 동문 언론인들의 뜻을 모아 초대 회장의 중임을 맡으신 安秉勳회장을 비롯한 여러분의 책임감이 더욱 막중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慶衡·徐玉植·朴時麗·姜天錫·朴聖姬는설위원, 관악언론인의 주비위원회 曹炳鎭·李昌炫·李昌炫간사위원, 모교 鄭憲燾총장, 鄭明熙부총장, 白忠憲대학원장, 柳根浩기획실장, 金仁奎사회과 학대 학장, 언론정보학과 康賢斗원예교수, 李昌熙대학원생 주간, 朴相烈홍보부장 등이 참석했다.

언론계에서는 대한언론인회 申馬植명예회장, 李貞鎭회장, 金聖培상임이사, 權赫昇 前서물정재신문 사장, 한국언론인포럼 尹銘重회장, 張俊泰 前경향신문 사장, 金景燾 前내외경제신문대표 라이언힐드 사장, 중앙일보 李濟

蕭상임고문, 경인방송 朴相伸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崔圭徹회장, 한국언론재단 朴紀正이사장, 관훈클럽 李相哲총무, 스포츠투데이 崔相炳집집인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또한 언론인 출신의 국회의원 鄭哲基·金鎮河·李敏在·崔泰烈·高興吉·金炳亨등문과 재능교육 張振雄사장, 방그레 鄭秀鎭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편 관악언론인회는 이날 모교 상징물이 새겨진 기념품(직지심경 동판본)과 동창회로 PDF CD-ROM TITLE(2장 1세트)를 참석자 전원에게 배포했다. (稿)

미술작품

孔成勳作



「노오는 밤... Oil on Canvas, 120x120cm, 2001.

〈작가약력〉

- ▲87년 모교 미술대학과 졸업
- ▲94년 모교 대학원 석사학위
- ▲91~2001년 개인전 5회
- ▲97~2002년 일기유형전
- ▲97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 인전 현대미술 초대전
- ▲98년 킴스아파트 열린 미술제
- ▲99년 시각문화-세기의 전환전
- ▲2000년 인천항경연미술제
- ▲2001년 다원미술 네트워크전
- ▲현재 성광문화 예술학교 교수

- 바로 잡습니다 -

지난호(제301호) 8~9면 하단에 게재된 동창회와 재단법인 관악회의 결산보고 중 대차대조표의 기간표시 「2002.1.1.부터 2002.1.2.31.까지」를 「2002년 12월 31일 현재」로 정정합니다.

본회의 결산은 ① 동창회 및 재단법인 관악회 감사에 의한 회계와 업무에 대한 자체감사 ② 「신한회계법인」의 결산과 세무조정 절차 ③ 외부 공인회계사 3명에 의한 외부감사(세무확인) 작업을 마쳤으며, 미포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위한 「2002년도 결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 「공익법인의 재무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비영리 법인설립과 운영에 의한 법률에 따라 서부교육원에 위의 서류와 함께 「2002년도 공익법인 사업연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회 許璿사무총장 임명

정치학과 졸업...농협 상무등 지내



지난 5월 1일자로 본회 선임 사무총장에 許璿동문(사진)이 임명됐다.

신임 許사무총장은 68년 모교 본리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75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농협중앙회 일본사무소장·중앙연수원장·강원도본부장·구조개혁본부장·상무 등을 역임했다.

전임 李世賢사무총장은 2002년 「서울대 인명록」의 346면 발간에 이어 동창회보 창간호부터 346호까지 수록된 PDF파일 CD-ROM 출시, 관악언론인회 출범 등을 마무리 짓고 지난 4월 30일자로 사임했다.

건강을 지킵시다

등산하면 백세 산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한다. 1999년 하버드의대 장수연구팀이 펴낸 'LIVING TO ONE HUNDRED'에 그 핵심 비결이 밝혀졌다.

저자들이 놀라고 내가 확인한 것은 미국 보스턴 근교의 1백세 이상 장수 노인들은 모두 2층이나 3층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저자들은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2~3층에 사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매일 ' صعود, 하강'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설명이다.

등구간 언덕을 오르는 것인데 필자는 이 개념을 넓혀 언덕이 나 낮은 봉산 또는 육교를 오르거나 지하나 낮은 곳에 내려갔다 올라오는 등 필자보다 약간 높거나 낮은 곳을 올라갔다 내려오거나,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필자가 등구간 건강장수에 가장 적합한 운동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등산을 매일 하면 과도한 운동이 되기 않고, 필자를 주로 걷는 평보는 충분한 운동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록 향상이나 팀워크를 위해 무리하게 장시간 운동을 해야 하는 직업선수가 아니라면 등산은 1주일에 한두 번이 적절하고, 평보는 천천히 걸다가(緩步) 빨리 걷고(速步), 다시 천천히 걷는 속도 조절에 의해 어느 정도 운동강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등구에 비하면 운동효과가 낮다



嚴在演(59년 法大卒)
대구지역개발연구소장

고 본다.

등구를 하는 경우에는 평지를 걷다가 등구하게 되고 다시 평지를 걷는 '자연적 3박자(악·강·약) 운동'이 되므로 건강 장수에 가장 적절한 운동종목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준비운동·주(主)운동·정리운동의 3단계로 나눠 준비운동(warming up)은 천천히, 약하게, 부드럽게, 짧게, 줄게, 낮게 즉 유연하게 하고, 주 운동은 빨리, 강하게, 굳세게, 길게, 넓게, 높게 즉 역동적(dynamic)으로 하며, 정리운동(cooling down)은 준비운동과 동등하게 유연하게 한다.

물론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평·등구·평보 외에 일반적인 건강수칙을 지켜야 한다. 구태여 몇 가지 중요한 수칙을 들자면 물은 하루 8~10잔을 마시고 식후 부 시간에서 시작 30분 사이에 많이 마시고 고구 소식하되 많이 찜어 선전히 먹을 것, 과음·과식·과민하지 말며 적정체중을 유지할 것, 현실을 긍정하고 미래를 낙관하며 즐겁게 살 것 등이다.

승인의窓

캠퍼스 들고 산행하다 간첩으로 몰려 강의 내용보다 여교수 목소리에 반해

梁承榮(63년 文理大卒) 경북대 사범대학 교수

동송중 대학본부 쪽에서 이화중 국립공원연구소를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넘어 화학과 건물 뒤에 납작하게 엮인 1층 지질학과 건물의 어느 방에 1957년 4월 초 20명의 신입생들이 모였다. 초면의 얼굴들이 서로가 동기생임을 확인하고 좁은 건물 내에 돌 조각들을 가득 담은 나무 상자들을 둘러보고 지질학이 물을 연구하는 것이구나 느끼고 있는데 높은 층부의 모습을 학과장이인 孫致武교수님이 등장하셨다. 너무도 겸손한 웃치림에 가난한 한국 과학자의 정형을 보는 듯 했다. 『여러분의 눈에 산은 산으로 계속는 계곡으로만 보이겠지만 앞으로 지질학자가 되면 경치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구름구름한 습곡구조가 눈에 될 것입니다. 땅위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기반암의 지질구조와 관련이 있고 이를 무시해서 입은 피해의 예가 매우 많습니까』라고 지질학의 중요성을 설명하시던 孫致武교수님의 인사말씀이 아직도 귀에 들리는 듯 하다.

암석 절단기 하나 없어 해머로 암석표본을 적당히 얇게 썰어 여러 날을 걸쳐 박편 하나를 겨우 만들던 일, 화학과 편광 현미경이 한 대뿐이어서 현미경 관찰도 제대로 하지 못한 일, 지금 생각하면 일반 고등학교 과학실 형편만도 못한 환경을 당면한 것으로 견디면서 그래도 우리 학계의 미래는 우리 것이라는 자부심만큼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당시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가난해 일생을 사서 읽는다는 일은 감히 생각을 못했다. 부득이 청계천 현책방을 돌아보다 미군부대 도서관에서 흘러나온 'Introduction to Physical Geology'라는 책을 훑었다. 사서 영한사전을 뒤적이며 새까맣게 토를 달며 읽던

일, 당시로서는 최신관인 'Principles of Stratigraphy'를 자랑삼아 보여주던 朴龍安(모교 명예교수)군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정말 글자 그대로 지식에 목말라 하던 기억이 새롭다.

반공교육을 철저히 받은 주민들에게 간첩으로 몰려 무장한 경찰이 동원되는 아슬아슬했던 사건들도 추억거리다. 지형도를 들고 허리에는 이상한 물건(브란돈 캠퍼스)을 차고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수상한 사람을 남과 간첩으로 오인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거친 남학생들로만 구성되어서인지 일년에 한 두 번 교외로 놀러갈 때에는 고추장대가 되어 길거리에서 주사를 뿌리던 부끄러운 일, 이화계 열이었던 철학과와 故 朴鍾鳴교수님의 'Nichts'의 연구라는 제목의 열광에 빠져들어 가던 일, 당시 젊은 여강사였던 李效再교수님의 사회화 강의에 강의 내용보다는 교수님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더 반했던 일, 嚴龍議교수님의 교육론과 강의의 문 높은 열광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신이 소속된 분야에서 제2대 학자로서 학계를 이끌어왔다고 자부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60~70년대에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탄전개발에 그리고 유일한 외화학속도 수단이었던 중석광산 개발에 당시 젊은 지질학자들의 피와 땀이 큰 기여를 했음을 우리 연배의 긍지로 생각한다.



1960년 교생실습을 마치고(뒷줄 우로부터 첫번째 필자).

平生 한번 모교발전과 동창회 결속 및 활성화를 위한 회비납부

동창회비는

- 후배들의 장학사업
- 동문 사회의 가교 역할을 위한 동창회보 발행
- 동문 결속과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 모교 각종 지원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마음은 있지만 번거로운 연회비를 평생 한번 납부로 잊어버리세요.

납부액	연 회 비	평 생 회 비
입	20,000원	200,000원
이	70,000원	500,000원

- 동창회보(매월) 포켓용 다이아리(11월중)를 발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동문 음악가의 기념 음반(CD)을 보내 드립니다.(8월중 발송)
- 동창회 관련 안내를 직접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 조훈은형 397-03-002804,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계좌로 ON LINE 입금하 시거나, 동창회 사무처로 연락주시면 GIRO 통지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입금주에는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안내는 02) 702-2233 총동창회 사무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Noblesse
Oblige

아프리카 근로자의 「정신적 지주」 閔範植목사

「피플스 하우스」에서 취업·교육 등 지원

팬플룻으로 캐나다에서 음악선교 하기도

어둑어둑한 저녁, 허름한 장바를 입은 한 이저씨기 길을 가는 외국인에게 무작정 다가가 붙는다.

『저기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훗참 놀란 외국인은 기여 들어가는 목소리로 뭐라 한마디하고는 출렁랑을 친다. 또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게 다가가 붙어봐도 놀란 토끼 마냥 도망가기 일쑤.

외국인 근로자, 특히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을 위한 센터 「The Peoples House」 목사로 봉직하고 있는 閔範植(58년 農大卒)동문과 이들의 첫 대면은 그렇게 웃고 웃기는 사이로 시작됐다.

『처음 피플스 하우스를 개소하고 무작정 외국인 근로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양복에 넥타이를 매 입으면 혹시나 더 안 좋게 볼까봐 일부러 수수하게 앞집 이저씨처럼 입고 나왔는데, 그게 그만 우습게 되고 말았어요. 한밤중에 생판 모르는 한국인 남자가 어디에서 왔어요? 어떻게 지내요? 불으니 자신들을 잡으러 온 형사나 나쁜 사람인줄 알고 도망 다닌 건 어찌된 당연하다』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다.

피플스 하우스는 지난 12월 29일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에 위치한 50여 평 남짓 3층 건물 옥상에 보금자리를 틀었다. 선교뿐만 아니라 한국 내 정착을 위한 취업 정보 제공 및 지원, 부당한 대우에 대한 개선, 설 수 있는 공간, 의료 지원, 한국어·영어·컴퓨터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사실 閔동문이 처음 계획했던 것은 중앙 아시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을 돕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었는데, 아프리카 근로자들의 아지트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알고 보니 화

성에 아프리카 출신 근로자들이 집중해 있었던 것.

파부가 까맣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편시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다가가기만 매우 어려운 일. 한국 사람을 절대 믿지 않는다며 침묵을 일삼던 이들에게 閔동문은 그러나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갔다.

『13년간 캐나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 또한 캐나다 국적을 가진, 이곳에서는 외국인입니다. 게다가 40대 중반이라는 늦은 나이에 가족들과 훌쩍 떠난 터라 고생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한국에서 겪을 어려운 과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한번 만난 외국인들은 이매일 주소를 알아내서라도 계속 연락을 했고, 피플스 하우스를 찾을 때마다 부인이 식사를 정성스레 대접했습니다. 40세가 넘는 제리라는 친구는 이곳에서 말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현재 부인과 갓 돌이 지난 아들 윈스턴과 살고 있는데, 동료들에게 목사님이 잘해야 우리가 잘 된다며 이 곳을 우리동민의 공간으로 만들자고 아주 적극적』이라고.

다른 외국인노동자센터나 관련 단체에 비해 재정·규모·인원 등 모든 면에서 열세에 있지만 근로자들이 업주와 오해가 생겨 해고를 당하고 다친 사람이 발생하거나 마음 터놓을 사람이 없을 때 閔동문은 언제나 해결사로 나섰다.

어!.. 몇 아프리카 사람들은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어딘지 모르게 눈이 선한 동양인을 믿을 수 있는 친구이자 정신적 지주로 여기게 됐다.

閔範植동문은 말한다. 아프리카 사람과 우리는 다르게 없다고.

『삼성이 대개 전하고 단순한 면이 있

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괜한 오해가 생겨 육할 때가 있지만 거꾸로 단순하기 때문에 머리를 굴리거나 사람을 괴롭히진 않아요. 음식을 대접하면 부쳐 볶아서워하고, 서운랜드에 가면 신기한 듯 어린애들 마냥 즐거워하죠. 또 사진 찍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당치들이 커서 몇 명만 모여도 화면이 꼭 차기 때문에 주일마다 카메라를 터뜨립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는 한국 사람이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민족으로 소문났었는데, 그래도 전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믿시를 받거나 심한 차별을 당하거나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다시 한국에 들어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일을 하게 됐는지 물었다.

『모교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10년간 식품회사를 다녔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종교고 목사고 생각이 없었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지식만을 추구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 삶에 대한 무관심, 정신적인 갈급함이 밀려와 신학대학원을 다니게 됐습니다. 이후 캐나다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했고, 제가 믿음을 갖는데 되돌려줄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과 믿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처음엔 한국 장애인들을 돕다가 약하고 힘없는 현지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암로원, 정신 질환 및 장기치료를 병원을 매일 방문하게 됐습니다.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해 학창시절 클라리넷, 드럼페 등을 연주하곤 했는데 이곳에서는 요란하지 않으면서 감미로운 팬플룻으로 음악 선교를 몇 년간 했어요. 조금 전여했다 싶으면 음악을 좀 할 줄 아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면서 아픈 이들에게 즉석 연주회를 열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는 기사를 보고 외국에서 고생하느니 내 나라에서 이들을 도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작정 왔다』고 말한다.

피플스 하우스에는 아직 많은 외국인이 있지만 閔동문은 「숫자」에 신경 쓰지 않는다.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자신의 길을 걷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閔範植동문은 자신이 직접 만든 홈페이지(www.peopleshouse.net)를 둘러보면 우리와 다를 게 없는 이곳 식구들의 꾸밈없고 장강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表)



2003년 3월 피플스 하우스에서(뒷줄 가운데 閔範植목사).



중국 전진지부

「천진 마피아」로 불리울 정도로 똘똘 뭉쳐

글:朴 祐(79년 社會大學·제일모직 상무)송두

하늘은 언제나 희색 빛, 건물은 온통 붉은 벽돌집, 거리에는 수많은 자전거 행렬, 인민군복 차림의 사람들, 이것이 한중수교 초기의 천진 모습이었다. 90년대 초부터 한두 사람씩 한국사람이 늘어 가더니 현재 교민 수는 유학생만 수천을 헤아리고 있으며, 한국과는 중요한 교역 도시가 됐다.

이 곳 천진에 있는 동문들은 주로 금융기관 총사나 기업체 주재원, 사업을 천진으로 옮긴 동문, 21세기 거대한 중국시장에 미리 노크하는 동문 등 다양한 색이다.

잘 알고 있는 동문 몇몇과 그지 일년에 두세 번 만나 식사나 하더니, 자습 동문들이 하나둘씩 늘게되고 급기야 정식으로 지부 동창회를 창설하는 움직임이 있게 됐다.



2003년 천목 모임.

1999년 6월 초대 회장으로 외환은행 천진지점의 曹和鍊(71년 文理大學)동문이 수고해 주셨고, 위로는 潘乙壽(70년 文理大學)동문을 모시며 아래로 韓相慶(72년 文理大學)·張佐煥(72년 文理大學)·洪慶約(73년 工大學)동문이 주축이 되고, 金年來(77년 師大卒)·李秀岡(82년 人文大學)동문의 지원 속에 막대한 吳哲守(83년 人文大學)동문을 총무로 지부 동창회가 탄생했다.

이국생활의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주로 골프 모임으로 출발했다. 분기에 한 번은 기본적으로 모였고 동문들의 애·경사, 떠나고 새로 오는 동문의 환송 및 환영 모임이 간간히 이어졌다.

골프를 함께 하고 벗가벗고 온천탕에서 몸을 녹인 후 저녁에는 주로 삼겹살에 중국 맥주를 건배하며 관악산 기슭에서 같이 자랐음을 확인하곤 했다.

특히 洪星均 동문은 별명이 「홍재독」(때를 타보지 못한 해군장교)으로 좌중을 웃기며 분위기를

돋우곤 했다.

잔에 맥주를 따라 「앞에 잔, 인식 상반에 대한 결례, 구호는 충성 삼장」하면 다같이 선배 내지는 회장님을 향해 「충성! 충성! 충성!」 박자를 맞춰 술도 외쳐댔다. 건배 후에는 반드시 약실검사를 해서 한방울이라도 있으면 벌주를 먹이곤 한다.

최근에는 구호가 「원우! 원우! 원우!」로 중국어로 영원한 서울대인임을 만세 부른다. 조폭을 연상케하는 대목이며, 천진 마피아 즉 천진파의 진수이다.

吳哲守동문은 지부 창설시 아이러브스쿨(www.iloveschool.co.kr)이나 세이클럽(www.sayclub.com)에 학교를 세우는 공헌을 했다.

金年來동문은 어디선가 퍼온 글을 자주 읽었고, 李鍾基(73년 農大學)동문은 시 한 수를 자주 읊었다.

IMF 위기가 진피아에도 예외는 아닌 듯 한 때 20명을 유박하던 동문의 숫자가 2000년을 고비로 한자리 숫자로 전락하게 됐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동문이 많아졌고, 새로운 동문을 찾는 것이 어려워졌다. 한국에 진피아 지부를 설립하기는 했으나 모두들 생애에 바빠 지주 모이지 못하는 모양이다.

회장인 曹和鍊동문이 2002년 삼배로 간 후 유지 자체가 매우 어려워졌고, 洪乙壽를 구성하게에도 급급한 실정이

돼버렸다.

올해 韓相慶동문이 지부 동창회 재건의 기치를 높이 들고 회장에 취임했으며, 최근 LG 부사장인 洪奎哲(76년 經商大學)동문이 새로 들어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게 됐다. 全載賢(82년 工大學)동문은 가장 막내답게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한다.

사람은 몇 명 안되지만 그래도 이런 모임이 있기에 총동창회 소식이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더없이 좋다.

지난 4월 15일 올해 첫 모임을 갖고 지부 동창회 재건을 논의했고, 노석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우선 주위 학생을 백발으로 찾아 현재 10명의 동문 수를 최소한 2배로 늘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총동창회와 더 긴밀하게 연락하고, 총동창회의 활동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진피아를 몰라 가입하지 않는 동문이 있다면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기약하며 아울러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해 본다.



韓相慶 회장



농화학동문회

모교에 「吳平煥장학금」 출연... 후학 사랑 실천

글:洪澤一(67년 農大學)회장



洪澤一 회장

농화학과는 1946년에 설립됐으며, 농화학동문들은 오랜 학문적 전통을 바탕으로 생명과 환경이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 연구, 산업체 등 국내외의 사회 전반에 걸쳐 약 1천6백여 명이 왕성한 활동과 봉사를 하고 있다.

공식적인 농화학동문회는 1968년에 제1회 1회 3월 마지막주 일요일에 정기모임을 개최하여 동문간의 친목과 우애를 다지고 있다.

전 회장단의 배후 이어 한 회장인 魏자와 李宇鎭(68년卒)수석부회장 및 대조 학년의 박희성과 지사가 동문회의 단결과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동문들의 인명록인 동문회 수첩을 1986년부터 발간하고 있으며 동문회 홈페이지(www.agchem.or.kr)가 운영되고 있

다. 동문간의 상견례와 옛 이야기, 푸짐하고 맛있는 점심식사, 장기자랑, 놀이와 게임 등으로 진행되고 기별에 따라서는 나뭇대로의 뒷골로도 즐겨하는 동문회 행사는 해가 거듭될수록 참여 동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후반기(7~8월)에 농생대의 편아 이진이 연두를 예정이어서 이번 동문회는 농생대 교정에서 열리는 마지막 동문회 행사가 될 것 같아 예년보다 더 많은 동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 농화학 동문들의 자라날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 후학 사랑이 특별하여 타계하면서 전 재산 3억원을 후학을 위한 장학금으로 출연, 동문들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금할 수 없는 故 吳平煥(63년卒)동문을 소개한다.

故 吳平煥동문은 경기도 수원에서 1940년부터 전형적인 가난한 농가 집안의 차남으로 태어나 고교시절 뛰어난 학업성적에도 불구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남들보다 1년 늦게 모교 농대 농화학

과에 입학했다.

농사일과 학업을 같이 해야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다녔으며 65년 졸업한 뒤에도 학업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상 포기해야 했다.

1975년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 회사에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던 중 1998년 9월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했다. 생전에 고인은 후학들에 대한 장학금미련을 입버릇처럼 가족들에게 말했다고, 따라서 미망인 오영옥 여사와 가족들은 고인 뜻에 따라 재산 전부를 농생대 연구재단에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1999년 4

월 28일 모교에서는 이 기금을 「오영환 장학금」으로 명명하고 오영옥 여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2000년부터 고인의 뜻에 따라 경제적으로 힘든 후학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진정 어느 장학금보다도 값지고 아름답다 하겠다.

앞으로 동창회는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미담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00년 정기총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玄基榮원장

“전문예술분야에 지원 늘리겠다”

지난 2월 17일 민족문화추진회 회장의 玄基榮(67년 許大宰)회장이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제11대 원장에 취임했다. 격식에 구애 받지 않는 자유인으로서의 작가에서 경영인으로 변모한 호동문을 지난 4월 16일 동송동 원장실에서 만나 보았다.

『정반대되는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스케줄에 몸을 맡기면 되니까 의외로 어색하거나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보니 2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업무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니다.』

—사중금리·유박으로 고갈된 기금정책을 버리고, 필요한 대국고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정책이 바뀐다는데,

『원래 2010년까지 1조5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자로 문화예술계 지원재원을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연 티켓을 통해 조성한 문예진흥기금이 4천5백억원인데, 금리 수준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현상환에서 이자수익만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지요. 더군다나 문예진흥기금 제도가 올해로 끝나게 되어 재원 확보가 막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관과 경정을 통해 들어오는 수익금의 일부를 다른 부처와 함께 배당받아서 산업비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문예진흥위원회로 개편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동안 문예진흥기금이 유용하게 배분되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보

수적인 잣대로 평가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기계적, 산술적으로 이를 나눠왔기 때문이지요. 앞으로는 좀더 활기차고 창조적인 전문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싶습니다. 위원회를 통해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가급적 배정하는 등 주체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민간 예술가들이 참여해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진정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기금을 적적직소에 배분하는 동시에, 예술과 문화로부터 소외된 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말한 내용을 재워주는 것이죠. 또 예술을 대중에게 잘 보급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안목이 높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직원들의 교육과 연수를 통해 학예관 수준으로 예술에 대한 감식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3년 임기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민간 예술가들이 참여해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진정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기금을 적적직소에 배분하는 동시에, 예술과 문화로부터 소외된 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말한 내용을 재워주는 것이죠. 또 예술을 대중에게 잘 보급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안목이 높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직원들의 교육과 연수를 통해 학예관 수준으로 예술에 대한 감식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玄원장은 제주도의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삼아 문화를 통해 민중의 역사를 재조명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대표적인 작가로 평가받고 있는 제주출신의 소설가이다.



1941년 제주에서 태어나고 교양교육과를 졸업하고, 197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아버지」로 등단했다. 대표작으로는 제주 4·3사건을 다룬 「순이삼촌」, 소선후기 이재수의 난을 다룬 「변방에 우짚는 새」를 비롯해 「아스팔트」, 「바람타는 섬」, 「마지막 데우리」, 「지상에 숨겨진 하나」 등이 있다. 그동안 제3회 만해문화상(1990), 제2회 오영수문학상(1994), 한국일보문학상(1999)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광신상고·서울사대부고·고척고 교사, 제주4·3연구소장, 민족문화추진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인 楊琴子(67년 師大宰·성산중 교사)여사와의 사이에 2남1녀를 두었다.

(정)

체육기금

모교 운동부에 1천5백만원 지원

야구·럭비·미식축구부 격려



좌로부터 李世禩사무총장, 金善振·黃禹錫지도교수, 林光洙회장, 全泰源체육부장, 李龍洛·孔大植부회장.

본회는 지난 3월 31일 모교 체육지원 기금으로 운동부에 1천5백만원을 지원했다.

모교 관악캠퍼스 인지너리 하우스에서 열린 林光洙회장, 李世禩사무총장, 미식축구부 黃禹錫

지도교수, 럭비부 金善振지도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林 회장은 全泰源체육부장에 야구부와 럭비부, 미식축구부 지원금으로 각각 5백만원을 전달했다.

본회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노후된 장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팍팍을 즐기고 있는

모교 야구부와 미식축구부를 지원해왔는데, 올해부터 럭비부 지원을 추가해 일반 동경대와외의 교류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럭비부는 2000년 제1회 서울대-동경대 럭비 교류전을 통해 두 대학 학생들의 친선을 도모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폭을 넓혀오고 있다.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하는 교류전 행사는 모교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선수단뿐만 아니라 동경대 인사들이 참석해 양교의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순수 아마추어들로 구성된 야구부는 그동안 선전을 펼쳤으나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올해는 학업으로 바쁜 대학원생인 정기 시열에 한가하게 되어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지금까지 번치 않는 열정과 투지로 노력해온 20명의 야구부원들에게 새로운 결심을 맺길 바란다.

한편 1993년 범명을 「GREEN TERRORS」로 공식화한 미식축구부는 94년부터 매년 서울지역 대회 결승에 올랐으며, 96~99년 그리고 2001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지역 우승을 거두고 있다. 특히 2000년 제41회 전국대학 대회에서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렸으며, 지난 1월 4일 전국대회 4강에 진출한 바 있다.

(정)

인터넷 「프레이션」 재무담당 張 碩사장

화제의 동문

서울지법 민사15부 盧泰憲판사

도시형 대안학교 以友중·고교 설립

“따뜻한 마음 가진 인재 키울 터”

오는 9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대안 학교 以友중·고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다. 이우교육공동체 1백명의 설립자에 의해 빛을 보게 되는 이 학교는 입시위주의 수업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교육의 내안을 제시하고자 설립했으며, 교사·학생·학부모 등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투명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以友중·고교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張碩(85년 人文大學·인터넷신문 프레이서 재무담당 사장)동문은 개교를 위해 바쁜 겉모습을 보이고 있다.

張동문은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이 도시가 아닌 농촌에 위치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학생들이 선택 지원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교육적 성과들을 일반화하여 다른 학교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도시인 분당에 以友중·고교를 설립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교사는 대안열과 지열을 이용한 벽난방 시스템과 생태학습장 등을 갖추게 되며 중학교는 각 학년 3개 학급, 고등학교는 4개 학급씩 편성돼 운영되고 학급당 정원은 20명으로, 중·고교 합계 정교생이 4백20명인 작은 학교이다. 학생들은 심층 면접과 학부도 면접까지 거치는 까다로운 절차에 의해 사회성·간수성·협동성·창의성 등 다양한 측면을 평가해 뽑는다.

「21세기의 더불어 사는 삶」을 이념적 목표로 갖고 있는 以友중·고교는 이기적 경쟁과 생태 파괴로 요약되는 21세기 문명의 위기를 극복해나갈 인재 양

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張동문은 더불어 「인재는 생태적 가치와 이웃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씨,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체험학습과 노작교육, 봉사활동 등을 정규 교과에 포함시켜 강의·주입식 수업이 아닌 토론·탐구식 수업을 진행할 것이며, 학생 개인의 수준과 진로에 맞게 선택 가능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해 개인별·수준별 맞춤

식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레베카 솔닛의 저서 「결기의 역사」 중 「교묘한 시절엔 공동체가 반란이듯, 때론한 시절엔 기쁨 그 자체가 반란이다」라는 구절에 감명을 받아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찾던중 현재의 교육현실을 뛰어 넘을 수

있는 학교 설립을 위해 이우교육공동체에 참여하게 됐다. 그는 우리 교육현실을 고민하고 그 대안을 찾는 운동들을 하는 분들과 만나게 된 것이 정말 행운이었다고 한다.

이우교육공동체는 以友중·고교를 설립하기 위해 세운 단계로 소수 재력가에 의한 전횡과 독단으로 학교가 운영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다수로 구성된 단체의 필요성에 의해 설립됐다. 1백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以友중·고교의 설립을 위해 회원들이 재산을 출연했고 설립이후에도 학교운영재정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앞으로 청소년교육문화 활동, 협동조합운동 등 지역공동체 운동, 대안교육연구소 사업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취득 후 사시 합격

“소신 있는 의사들이 많아져야”

「의대를 졸업한 후 새롭게 공부하는 것이 늦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주위에 다시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권해줬을 때 지금도 공부하기에 늦은 나이가 아니라고 느껴 사법고시를 준비하게 됐다」며 의료분쟁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서울지법 민사15부의 판사 盧泰憲(92년 醫大卒)동문은 자신이 의사에서 판사의 길을 선택한 첫걸음을 이렇게 말한다.

96년 4월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盧동문은 80년대 후반 의대 재학시절 그의 주변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에서 대부분 의사들이 승소했고 이해 역을 한 환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봤다. 이런 의사들과 이에 맞서기 위해 법에 힘을 빌려 더불어 살아가는 환자들과의 갈등을 보면서 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조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전문의 자격을 따자마자 곧바로 사법시험에 도전했고 2001년 2월 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서 판사로 임용됐다.

과거 의사들의 일방적인 승소로 돌아간 것이 95년부터 과신의 입증책임이 의사에게로 전환되면서 특히 마취과와 산부인과 영역에서 의사가 승소하는 경우가 매우 늘었다고 한다. 마취과에서는 정상인 사람이 들어왔다가 사망했다 하면 사망한 원인을 밝혀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책임을 의사가 받게 된다. 이런 현상 때문에 의사들은 방어진료를 하려고 마취 전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까지 환자들에게 하도록 해 재판과정에서 담당 책임추궁을 줄이려 한다. 盧

동문은 이 때문에 판사들에게 의료분쟁에서 생기는 의학적인 미지의 영역을 줄여 나갈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별히 의료분야에서 판사들의 전문성이 더 요구되는 것은 가림 건축분야에서는 분쟁이 생겼을 경우 문재를 해결해줄 수 있는 조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성을 띤 기관에서 감정이라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건물에 대한 정



확한 판단을 판사에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의료분야에서 감정이라는 절차는 같은 의사로부터 해명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때문에 판사에게 더욱 진본화가 요구된다는 것.

의사와 판사의 자리가 공통점이라고는 찾기 힘든 그래서 비교하기조차 어려운 자리이지만 그는 환자들에게 삶의 질을 유지시켜주면서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의사와 판사에게도 같은 역할이라고 말한다.

앞으로 盧동문은 의사들에게나 환자들에게서 채수 없으면 재판에 진다, 여자하면 소송 걸린다라는 말을 없애고 싶다고 한다. 의사는 소신 있게 진료를 할 수 있고 환자는 망설임과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판결은 절대로 환자한테 건 의사한테 건 건이 없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분쟁에서 가장 사심에 부합할 수 있고 객관성을 띤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제 포부입니다」 (후)

서울대 가족

국립국악원 尹美容원장

전통음악 지킴이로 활동하는 국악인 가족

“부인·장녀·조카도 가야금 전공했어요”

변호사 가족, 의사 가족, 교수 가족은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음악 분야 가운데 국악을 전공하고, 가야금을 연주하는 동문이 한 가족에 네 명이나 있다면? 흔하지도 않을뿐더러 자주 볼 수도 없을 것이다. 尹美容(69년 音大卒·국립국악원장)동문을 비롯해 부인 李孝玢(71년 音大卒·추계예술대 교수)동문과 장녀 尹美程(2000년 音大卒·주)Raf Korea 미디어 오퍼레이터)동문도 가야금을 전공했으며, 조카 郭修銀(92년 音大卒·국립국악중학교 가야금 교사)동문 역시 가야금을 전공했다. 이들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은 아직은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나라 전통 음악을 조용히 그러나 한결같이 알리는 데 남다른 열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尹美容동문은 국악이외의 분야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이러한 그의 외길 인생은 어린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 파주의 농촌집안에서 태어난 尹동문은 2남3녀 중 막내였다. 다른 형제들은 음악에 별 재능이 없었지만 유독 尹동문은 노래를 곧잘 부르곤 했다. 초등학교 시절, 무연히 큰 누님이 신문에 실린 국악사 양성소에서 국비장학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尹동문에게 다닐 것을 권유했다. 다행히 음악을 좋아하던 그는 흔쾌히 수락했다. 이후 모교를 입학한 尹동문은 가야금 연주자로서의 길을 걷고 싶었지만 당시 모교에는 이론과 정만 있어 자신의 꿈은 잠시 접어야만 했다. 다행히 그는 가야금 산조본야를 20여 년간 별도로 이수하면서 무형문화재 제23호로 등록, 후계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졸업 후 국립국악원에 있던 尹동문은 각 신상권 추계예술대 교수로 옮기면서



뒷줄 좌로부터 李孝玢·李仕賢동문, 李孝玢·尹美容동문 내외. 앞줄 좌로부터 두 번째 尹美程동문.

국악에 대한 자긍심과 국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정이 용솟음쳤고, 후배를 양성하는 일에 정성을 쏟았다. 그는 모교에도 없는 관소리와 민요 전공과목을 신설하고, 유능한 젊은 판소리꾼을 발굴하기 위해 호남지방 곳곳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그렇게 숨돌릴 틈도 없이 尹동문은 다시 37세라는 젊은 나이에 국립국악중·고교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5년 동안 뛰어다니고 4년에 걸쳐 강남구 포이동에 공연장과 기숙사까지 갖춘 새 건물을 짓게 되었으며, 기반이 잘 갖춰졌을 무렵 尹동문은 또다시 국립국악원 원장으로 부임하게 됐다. 당시 교수가 되지 않았다면 가야금 연주자로서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도 있다고.

한편 尹美容동문이 국악기관을 운영하고, 후배를 양성하는데 세월을 보냈다면 류파는 다르지만 가야금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있는 부인 李孝玢동문은 정기적

으로 가야금 독주회를 개최하며 연주자로서, 또 교수로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 그녀의 집안엔 89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부친 李仕賢(49년 法大卒·변호사)동문, 사업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큰오빠 李孝欽(67년 法大卒)동문과 미국에서 환경영역 물질을 줄이는 회사에 재직중인 작은 오빠 李孝喆(68년 工大卒)동문이 포진하고 있다. 그녀 역시 尹美容동문처럼 형제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음악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이밖에 법대 출신으로, 조카 郭修銀동문의 남편 金煥珠(89년 法大卒)동문이 관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가 가야금을 전공하게 된 것은 당시 신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모친 때문. 피아노를 전공하던 李孝玢동문에게 그녀는 요즘 세상에 피아노 가지고는 남들과 경쟁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플연 전공을 바꾸게 했다. 한편 李孝玢동

부인

李孝玢(71년 音大卒)추계예술대 교수

장녀

尹美程(2000년 音大卒)미디어 오퍼레이터

장인

李仕賢(49년 法大卒)변호사

처남

李孝欽(67년 法大卒)개인사업

李孝喆(68년 工大卒)在美

조카

郭修銀(92년 音大卒)국립국악학교 교사

조카사위

金煥珠(89년 法大卒)대법원 판사

문은 음악 외에 도자기, 공예, 꽃꽂이 등에 남다른 재주가 있다. 이 역시 꽃꽂이 연구가였던 모친으로 물려받았다. 추계예술대 교수로 부임하기 전, 고등학교에서 가야금과 꽃꽂이 수업을 겸하며 항상 두 가지 일을 맡곤 했었다.

부부가 늘상 집에서 가야금을 연주하던 터라 두 딸들은 尹동문 부부가 연주하던 곡들을 거의 읊조리듯이 외우고 다녔다고 한다. 닳달이 부부였던 이들은 자녀들이 감성을 키우고, 즐겁게 자라도록 어릴 적부터 미술과 피아노를 시켰다. 예술분야를 통해 세상을 보는 안목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미술에 재능이 있던 장녀 尹美容동문은 그러나 대학입시 무렵, 갑작스레 가야금을 전공하겠다고 선언, 두 부부의 단시간(?)의 노력 끝에 모교를 입학하게 됐지만 현재 장녀는 전공과는 다소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음악벤처회사에서 각종 대중음악을 새롭게 편곡하여 소프트웨어에 입력하는 미디어 오퍼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尹美容동문은 앞으로 부인과 자녀, 그리고 후배들에게 정을 쏟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 예정이다. 또 『다행히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가족은 전통문화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것을 지키고,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은 가족 모두가 지킬려고 한다』며 『국악인 가족』다운 말을 던진다. (表)



전통의학의 과학적 검증 필요하다

현실의 잣대로 내건강 지킬 수 있어야

金貞淑(73년 藥大卒) 한국한의학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오랫동안 미국생활을 하는 중에 갑자기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신 어머니 때문에 낯익은 한국에 익숙했는지 모르겠다. 아무 생각 없이 연건동 캠퍼스를 찾았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위를 봤을 때 지금은 대학로로 불리는 너무나 변해버린 동숭동 교정과 연건동 캠퍼스를 보고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모르겠다. 나만 한동안 과거의 추억이 스쳐지나갔다.

봄의 햇살은 개나리 담장과 가을 은행잎이 넘실거렸고 지금은 북적거린 세느강과 미리보 다리, 그 다리에 앉아 있던 대학생들 때문에 혼자서는 동숭동 캠퍼스를 못 들어갔던 1학년 때의 그 수업을, 어떤 녀석이 수업에 안 들어가고 여학생 구경하고 있나 훑어보며 지냈던 졸업반 여학생 생활의 단상들이 한순간, 돌음이 통기타 치면 잔디밭, 6년간 열심히 익혀낸 실용성이 있던 연건동 캠퍼스를 나는 고소란대 내 가슴속에 내 몸을 키우며 살의 인과로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 눈앞에 있는 그 곳은 외국 한 거리를 지나는 것 같은 낯선 곳으로 바뀐 것이었다. 문득 헤아려 보니

대학을 떠난 지 벌써 30년이 되었고 옛날 얘기하는 초보의 늙은이로 변한 내 모습을 보면서 학창시절 꿈의 실현에 매달렸던 지난날들과 현실 속의 시간의 괴리에 대해 잠시 상념에 잠기게 한다.

내가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살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었다. 약학을 전공하고 미국 의과대학에서 스테프르 연구만 하던 내가 한의사들이 한약분쟁 결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한국한의학회연구원에 근무하지 강산도 변한다. 10년이 가까워 왔다.

한약분쟁이 뭔지도 모르고 보건복지부 소속 정부출연연구소라는 것만 알고 미국서 사고를 가지고 한약으로 세계적인 외약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꿈을 갖고 용기있게 선택한 직장이었다. 출근하자마자 한 의사가 나에게 '약사타도'라는 메모지를 주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고 그때까지 내가 약사였다는 것조차도 잊고 살고 있었으나 그것이 바로 엄연한 현실 속에 던져진 삶의 일부임을 깨닫게 되었다.

현재부턴가 우리 사회는 '글로벌' 혹은

'세계적'이란 용어들을 흔히 쓰기 시작했고,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꾸준한 투자한 덕분에 미국의 대체의학 시장과 연구자들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 주위에 서 나에게 색안경으로 보시던 젊은 분들의 눈빛이 조금은 부드러워졌다고 느끼지만 많은 일반인들은 아직도 전통적인 한의학에 비방 혹은 신비한 기술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이 달에 갔다 온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달에 갈 수 나무와 토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기록된 중국 한의서 처방을 인용하거나 수백 년 전에 쓰여진 동의보감을 인용하는 것이 한의학의 현실이다.

과학논문은 10년이 지나면 거의 읽지도 않을 정도로 발전이 빠른데 전통의학은 그 시대의 주된 의료행위였으므로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전자 연구로 맞춤의학 시대에 접어들어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전의 의학서를 인용한 사실들을 현대 과학적인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이중적 혹은 무모한 낙관함을 갖고 있다. 한의사들의 로비가 무시되어 혹은



웹진 신비하고 뭔가 있을 것 같은 막연함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으나 한의학은 분명 의학이며 한약은 약으로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분야이다.

어떤 회장님이나 사장님은 '우리는 여자들에게 기숙이나 기능은 파자' 것이 아니고 꿈을 맡고 있습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꿈과 현실에 각각 적용하는 이중 잣대를 사용하기보다 현실의 잣대로 내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과학적, 제도적인 검증과정이 우리의 전통의학에 세계적인 의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느껴진다.

3040세대의 자녀 교육 이래도 되나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시간을 주도록

鄭道祥(85년 人文大卒)(주)언어과학 대표

21세기 한국의 자녀 교육에서 화두는 사교육, 기러기 아빠, 선행학습, 조기교육이다. 대변된다. 70년대와 80년대의 격동기를 지낸 우리 3040세대의 자녀들이 이 화두의 중심에서 있는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학교 끝나면 학원에 가고, 그것도 모자라 또 과외공부를 한다고 달려가고 있다. 우리 세대보다 더 고령을 한 5060세대 그리고 그 이서 세대는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그 분들은 철저하게 선생님을 신뢰했고, 선생님을 존경했다. 학교를 믿었고, 우리들을 자유롭게 뛰놀게 했다.

우리는 지금 공교육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평안에는 말할 것도 없고, 주말에 운동장, 놀이터에 나가면 당연히 뛰어 놀고 있을 아이들이 없다. 집밖이 시끄러워서 이웃 아주머니가 나와 아이 이 녀석들이 이제 집에 들어와서 하고 숙제를 들으면서도 그런 따돌림 거리를 뛰다니던 아이들의 모습이 없다. 그렇게 뛰놀고 있을 아이들은 어느 답답한 공간에서 학교에서 배운

것과 별한 다른 게 없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시간을 죽이고 있다.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풀이 능력을 키우면서 여러분은 중학교에서 80, 90점을 얻은 학생과 100점을 얻은 학생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감히 말씀드리지 못한다. 차이가 없다고, 하나 문제풀이 훈련을 받고 100점을 받은 학생보다, 혼자서 공부해서 80, 90점 받은 학생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나는 직원을 채용할 때, 그들이 가지고 온 도록 접수에는 관심이 없다. 실력과 성수가 상관관계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놀랍지도 아니지만 대학 졸업자, 심지어는 대학원 졸업자의 상당수가 영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대학에서 원서를 가지고 수업에 한다고 하지만,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가는 의심스럽다.

이 시대엔 겉 겉대기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실력 향상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접수 용량이 있다. 대학에서 원서를 받고, 몇 문장만 외우면 영어가 된다. 영어회화에서 문법이 필요 없다. 무늬만

교육용인 소프트웨어 등등 아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3040세대가 이런 껍데기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좀 제대로 놀았으면 좋겠다. 외국어는 열심히 해야 할 수 있고, 전수야 어쩔만 실력이 있어야 하고, 미소한 수련의 문제를 수백 번 반복하는 것이 공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습득하고, 습득한 내용을 체계화하는 것이 공부라고 가르쳐야 할 것이다.

3040세대에는 자녀교육 못지 않게 돈과 시간을 문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 잘못된 스승개도도 매일 연습장과 필드에 나가서 연습을 한다고 신념이 늘 수는 없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본을 충실하게 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한 두 주일 클럽을 자주 않으면 못내지는 골퍼가 매일 골프연습장을 찾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혼자서 공부를 할 수 없어 매일 학원을 다니게 해야 하는 것일까?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생 각할 시간, 자유로운 시간, 대화할 시간을 주어야 할 때다. 때로는 바쁜 날 숙제를 하며 몸이 진통투성이가 됐을



때 느끼는 최면도 맞으면서 커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은 방치질하는 것을 배워나 하고, 형광등 교체하는 것도 배워나 한다. 그들에게 거창한 분야는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느끼면서야 배, 엄마와 달리기와 하고, 신력은 없지만 거친 몸싸움을 해가며 농구공을 잡으려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팔짱끼는 어 감이 얼마나 직장으로 향하는 '아빠'의 모습,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 이 있을까? 조기교육, 선행교육, 조기유학, 사교육을 가깝게 실행하고 있는 3040세대가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82 (주)코캠엔지니어링

세계 최초로 충전용 「리튬폴리머」전지 개발

“월 2백50만셀 생산, 세계 5위로 등극할 터”

48화음, 컬러풀한 화질, 실시간 뉴스를 볼 수 있는 동영상, 신기술에서 도 터지는 통화품질 등 각 통신업체들은 저마다 한 발 앞선 휴대폰을 선보이기 위해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휴대폰이 작동하도록 하는 배터리를 없다면 유명무실하다는 것. 매년 매일 사용된 배터리를 교체한다면 우리는 1년 동안 3백65개의 비싼 배터리를 사야하며, 다 쓰게 된 배터리는 더 이상 보관하거나 처리할 장소도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충전용 배터리이며, 2차전지라고도 부른다.

2차전지의 발명은 소비전력이 많이 필요한 제품의 휴대가 용이하도록 했으며, 휴대폰·PDA 등과 같은 개인용 통신 산업에 큰바람을 일으켰다.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리튬이온전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차세대 이동통신용 2차전지로 불리는 리튬이온폴리머 전지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지만, 상업화에 성공한 나라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 1999년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폴리머 전지를 개발하는데 성공한 기업이 출현했다. 지난 1989년 설립된 (주)코캠엔지니어링(사장 洪智俊·78년 師大卒)이 그 주인공.

SLPB(Superior Lithium Polymer Battery·리튬폴리머전지) 개발에 성공, 국내 2차전지 시장의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코캠엔지니어링(www.kokam.com)은 설계와 좌절 속에 과감히 2백억원을 투자해 R&D 연구진과 축적된 자체 기술로 전 라인을 완성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전지설비 제작기술과 엔지니어링기술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큰 자랑거리. 이러한 리튬폴리머전지의



洪智俊 사장

원천기술 및 대량생산 성공은 새로운 전지생산방법을 확립하고, 다양한 형태의 리튬폴리머전지를 생산하게 됐다. 리튬폴리머 전지 및 TFT-LCD 편광필름을 개발·생산 및 엔지니어링 수출을 하고 있는 코캠엔지니어링은 매출액의 90% 이상을 수출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2001년 1백80억원, 2002년 2백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경기도 시흥에 본사 및 TFT-LCD 생산공장, 충남 논산에 2차전지 생산공장을 두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물량이 늘어나면서 현재 충북 진천에 세계 최대규모인 8천2백평 규모의 월 1백50만셀의 리튬폴리머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준공하고 있다. 오는 10월 완료되면 월 1백만셀 규모에서 월 2백50만셀을 생산하는 세계 5위 규모의 리튬폴리머 생산업체로 자리매김 한다. 현재 매달 50만셀의 리튬폴리머전지를 커지엔(중국 3위업체), 스탠다드텔레콤, 세원텔레콤, 엠텍 등의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업체와 후지필름 등의 디지털 카메라 생산업체 및 MP3를 생산하는 업체에 꾸준히 납품하고 있다.

한편 리튬폴리머전지는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판과 음극판이 서로 교차되게 적층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한 지그재그형태로 연속적으로 접는 「적층식(Z-folding)」 방식으로 제작됐다. 전지 성능 및 안정성이

월등히 높음에다 제조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며 특히 0.5mm 두께의 초박형 모델까지 개발되면서 차세대 디지털 device인 초박형 디지털 카메라, PDA, 액티브스마트 카드 등에 사용되고 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리튬폴리머 2차전지의 원천기술에 대한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전세계 14개국에 특허를 출원했으며 작년 6월까지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러시아, 체코 등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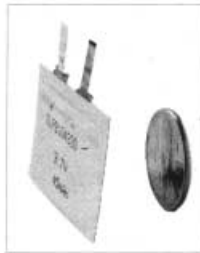
코캠엔지니어링이 개발한 리튬폴리머 전지는 각종 국제대회에서 그 빛을 여실히 발휘하고 있다. 특히 후지필름과 공동개발한 세계에서 가장 얇은 6mm 두께의 디지털카메라 코캠eye-plate는 기네스북에 공식 등재되었다. 여기엔 코캠 엔지니어링이 개발한 1mm 두께의 리튬폴리머전지가 장착돼 있으며, 아직 일본에서는 1mm 두께의 2차전지를 개발하지 못한 상태.

또한 코캠엔지니어링의 2차전지를 장착한 일본 아사히대학교의 태양에너지자동차

「Sky Ace Tiga」가 2002년 국제자동차 연맹집 태양에너지자동차대회 일본 서킷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으며, 당시 일본 소속의 32개팀이 참가했었다. 아사히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31개팀은 전세계 각국의 2차전지 업체를 대표하는 업체들이 개발한 리튬이온전지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미국 유타에서 열린 제6회 국제초소형비행기 경연대회에서는 리튬폴리머전지를 장착한 브리검영대학교팀이 우승을 차지, 15개팀 중 9개팀만이 비행에 성공했는데 그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세계적 권위의 이번 경연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전세계 초소형비행기 연구대학 및 회사에서 코캠엔지니어링의 배터리를 주문이 쇄도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됐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5월 31일 한일 월드컵 개막식에서 날아오른 로켓새 「사이버드」에 리튬폴리머전지가 장착되기도 해 명실공히 코캠엔지니어링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수준임을 증명하기도 했다.

洪智俊사장은 「한국을 뚫히는 KOREA와 나의 투쟁을 의미하는 KAMPF가 합쳐져 만들어진 「KOKAM」은 도전적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성실한 자기개발과 혁신기술을 추구하며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여하려는 이념이 깔려 있다」며 「국내 순수 기술로 리튬폴리머전지 개발에 주력해 세계시장에서 우뚝 솟을 그 날을 위해 끊임 없는 실험정신과 도전정신을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된 포부를 밝혔다. (表)



리튬폴리머전지와 동전.



경기도 시흥의 본사.

모교소식

국내 첫 「글쓰기 교실」 개소 글쓰기 지도·상담업무 실시



모교 교수학습개발센터(소장姜明求·언문정보학과 교수)는 지난 4월 10일 관악캠퍼스 교수학습개발센터 1층 회의실에서 「글쓰기 교실」 개소식을 갖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지도 및 상담 업무를 시작했다.

글쓰기 교실은 학부생을 위한

일대일 리포트 상담을 비롯해 대학에서의 글쓰기와 관련된 전반적인 지도와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대학 최초의 글쓰기 교육 전문 기관이다.

글쓰기 교실은 지난해 7월 취임한 鄭寶璠총장의 공약 중 하나였다. 이를 위해姜소장은 지

난해 11월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가 외국 유수 대학들의 글쓰기 센터를 견학하고 수십 권의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학생들은 글쓰기교실에 상담을 신청하고 리포트를 첨부하면 일정한 상담 훈련을 받은 박사 과정의 연구조교 6명과 면담을 통해 리포트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매 학기마다 인문, 사회, 자연계열의 교양 과목 가운데 글쓰기 시범과목을 선정해 수강생이 글쓰기 교실 상담을 받도록 유도하고 평가작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글쓰기 교재 개발, 학위논문과 영어논문 작성법 워크숍 개최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관 개소식에 앞서 지난 4월 9일 녹색대학 張善興(61년 文理大卒·前모교 물리학과 교수) 총장이 근대대학 1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나의 학문과 글쓰기」를 주제로 개소 기념 특강을 했다.

지역균형 선발제의 구체적인 입시안을 9월경 발표할 계획이다.

관악구에 중고컴퓨터 기증

모교 鄭寶璠총장은 지난 4월 11일 관악구청장실에서 金炯岡(학술정보원장, 金熙喆관악구청장, 관악구 어린이집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중고 컴퓨터」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전달된 18대의 중고컴퓨터는 관악구의 18개 가정교육시설에 설치돼 7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업무 전산화에 사용된다. 이를 위해 모교는 가정교육 시설운영 프로그램인 「겉모습 프라이빗」을 설치했다. 이에 앞서 모교는 지난 3월 관악구 소와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에 컴퓨터 32대를 기증했다.

교직원 임대아파트 신축기로

총장 공관자리 등에...2백77세대

모교는 최근 鄭寶璠총장의 공약인 교수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기존 총장공관과 교수아파트를 헐고 교직원 임대아파트를 신축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서울대 발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 시행되는 이 사업은 두 단계 공사로 진행된다. 1단계로 총장공관 터에 8월부터 교수 임대아파트를 신축, 2004년까지 완공, 현재 교수아파트 입주자를 신축한 아파트로 이주시킨 뒤 2

단계로 현재 교수아파트를 2005년까지 재건축할 계획이다.

신축되는 교직원 임대아파트는 총 2백77세대로, 임대기간은 5년이며 3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입주자의 거주 불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모교 기획실은 지난해 9월 관련 연구팀을 구성, 무주택 교직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는 등 학내 의견 수렴을 통해 이 사업을 계획했다.

바이올리니스트 金永旭교수

개교 이래 첫 정교수로 특재



음악대학(학장 姜 勳)은 지난 3월 31일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金永旭교수(사진)를 기와 교원전공 정교수로 특별채용했다고 밝혔다. 모교가 개교 이래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고 특별채용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金교수는 일대일 지도를 통해 국내 음악 영재교육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金교수는 61년 방한중이던 피아니스트 루돌프 제르킨에 의해 발탁돼 미국 퍼듀 대학교로 유학했으며, 세계적인 지휘자 번스타인은 그를 진정한 천재라 부르기도 했다.

63년 美방송사 CBS를 통해 생방송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

라의 공연으로 미국 무대에 정식으로 데뷔한 金교수는 68년 뉴욕 카네기홀 데뷔 공연을 시작으로 미국 순회 공연을 시작했다. 그 후 카라얀, 번스타인, 올덴드, 프레빈, 하이티크 등과 같은 명지휘자들과 협연하기도 했다.

대학원 입시, 토를 성적 인정

모교는 지난 4월 19일 2003학년도 대학원 후기 입학전형부터 토를(TOEFL) 성적을 입학 전형 자격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교는 대학원 입학전형에서 토플 성적만을 인정해 왔으며, 외국대학(원) 출신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토플 성적을 인정해 왔다.

기관이나 학교가 ETS로부터 문제를 받아 자체적으로 치르는 Institutional TOEFL Program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ETS에서 모교에 공식 통보하는 성적만 인정받을 수 있다. (續)

2005학년도 지역균형선발제

내신위주 20%·특기자 10% 선발

모교는 지난 4월 4일 전체 모집위원의 20% 내외를 수시 모집에서 내신 위주로 선발하겠다고 내용을 골자로 한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지역균형선발 전형은 다양한 능력과 배경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원칙하에서 내신 성적 위주로 지원자를 평가하며 지원자의 출신 지역 등 학업 배경도 비교과 영역에서 고려된다.

모교는 2005학년도에 우선 전체 모집위원의 20% 내외를 이 제도로 선발하되 점차 인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 모집단위와 관련된 분야의

탁월한 재능과 경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목적으로 특기자 전형을 신설, 전체 정원의 10% 내외를 선발하기로 했다. 특기자 전형은 각종 경시대회 수상자와 특종교과 성적 우수자, 일정 단위 이상의 전문교과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내신보다는 특기를 평가, 합격자를 결정한다.

정시모집에서는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일부 폐지하는 등 비교과 영역의 비중을 낮추는 등 전형요소를 현행보다 간소화하고, 수능 등 객관적인 학업 성취도를 바탕으로 지원자를 뽑을 계획이다.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문 열어 특허신청 및 기술이전 관리



모교는 지난 4월 17일 관악캠퍼스 연구공원 본관 강당에서 鄭雲燦총장과 산업자원부 尹鍾植장관, 특허청 何東萬청장, 교직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 개소식을 가졌다.

직적 재산권 및 기술 이전을 전달할 이 재단은 대학 교직원 이 발명한 각종 기술이나 제품

을 넘겨받아 관리하면서 특허 신청 및 산업체 기술이전을 수익사업으로 수행하고 수익금의 60~80%를 발명자에게 배분할 예정이다. 국·공립대에서 수익사업을 기술이전 조직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학협력재단의 설립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교수의 권익보

호는 물론 기술이전을 통한 수익을 발명자에게 보다 많이 보상함으로써 연구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나아가 연구와 기술이전 및 보상 그리고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체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궁극적으로는 기술이전의 활성화가 대학과 산업체간의 유기적 관계를 더욱 증대시켜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鄭雲燦총장이 이사장을 겸임하며, 공대 재로공학부 洪國善교수가 단장을 맡게 된다. 조직 체계는 사무운영본부, 기술사업본부, 창업지원본부 등 3개 본부와 운영위원회, 법률경영위원회, 기술평가위원회, 창업지원운영위원회 등 4개 위원회로 구성된다.

한편 모교 교수들이 보유한 특허만도 2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 부실장에 崔載弼교수

余禎星교수 연구부처장에 선임
閔庚煥대학생문화원장 취임

모교는 지난 3월 25일자로 기획부실장에 공대 건축학과 崔載弼교수, 연구부처장에 생활과학대 소비자동학부 余禎星교수를 선임했다. 또 4월 1일자로 대학생문화원장에 사회대 심

리학과 閔庚煥교수가 임명됐다. 신임 崔부실장은 80년 모교 공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美조지아공대에서 건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美일리노이대·명지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신임 余부처장은 83년 모교 가장대 가정관리학과를 졸업한 후 美코넬대에서 소비자경제학 박사학위를 마쳤으며 한국소비자학회 상임이사, 모교 소비자아동학부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閔원장은 73년 모교 문리대 심리학과를 졸업했으며, 美워싱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84년 모교에 부임, 심리학과장, 심리과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稿】

信陽문화재단 鄭哲圭이사장 신양학술정보회관 건립 위해 모교에 총 26억6천만원 출연



이다. 鄭이사장의 약호를 따서 이름지어진 신양학술정보회관은 지난 4월에 착공하여 완공까지 약 15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며, 8백여 평의 4층 규모로 첨단 열람실과 전자정보실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鄭이사장이 1998년 12월에 설립한 信陽문화재단은 2002년 말 현재 기본재산 54억원의 증권재단으로 발전해왔다. 鄭이사장이 1967년 산업용고무제품의 국산화 개척을 위해 기업을 설립, 증권기업으로 성장하면

鄭이사장이 지난 1999년 모교에 공학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는 의향서를 제출한 후 1999년 12월 29일 5억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현재까지 총 26억6천만원을 출연했다. 사업 시작 당시 소요자금을 25억으로 예상하고 약정했으나 그동안 학교측과 관공서의 행정절차 관계로 많은 시간이 흘러 30억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鄭이사장이 1999년 6월 재미동포회와 평의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당시 하버드대학을 둘러보면서 90여 개가 넘는 도서관들이 독자들의 기부금에 의해 건립됐다는 사실에 감명받아 진척된 것

을 시작으로 鄭이사장이 1999년 6월 재미동포회와 평의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당시 하버드대학을 둘러보면서 90여 개가 넘는 도서관들이 독자들의 기부금에 의해 건립됐다는 사실에 감명받아 진척된 것

한편 1999년 12월과 2000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본회에 총 1억원씩 2회, 2001년 3월 1회, 2002년 3월 1회, 2003년 3월 1회 등 총 5회 26억6천만원을 추가로 출연해 모교 재학생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亨)



崔載弼 기획 부실장



余禎星 연구 부처장



閔庚煥 대학생문화원장

생명공학공동연구원

아시아 대표연구기관

모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원장 任正彬)은 지난 3월 28일 세계적인 과학 전문지인 「사이언스(Science)」에 의해 아시아인

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높은 수준의 대표적 연구기관으로 소개됐다고 밝혔다.

생명공학공동연구원은 앞으로 20여 명의 세계적인 석학을 초빙하기 위해 외국 유력지 등에 채용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SNUA OPINION LEADER

암세포가 우리 몸 속에서 강한 생존력을 갖도록 돕고 있는 「저산소유도인자(HIF)」단백질을 통해 암세포는 암성화가 진행되고 어떤 항암제도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진다. 이 물질만 제거하면 암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가설을 증명할 수 있으나 그동안 이 물질을 제거하는 어떤 물질도 찾지 못했다. 최근 모교 의대 약리학교실 최정호교수는 이들 암에서 40여 종의 암 성장 촉진 유전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HIF단백질을 억제하는 화합물질(YC-1)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암환자 3분의 1 예방 가능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감염을 비롯한 많은 종류의 질환의 치료가 가능해져 인류 수명이 갈수록 연장되고 있다. 그러나 수명연장에 따라 오히려 노인성 질환은 발병 빈도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알의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암환자 발생률은 매년 증가해 연 10만명이 넘고 있다.

암의 치료는 매우 어려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암환자의 3분의 1은 예방 가능하며 3분의 1은 조기 진단되면 완치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은 적절한 치료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진단이 늦어 암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치료가 어려워진다. 또한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옮겨져 전이되면 치료는 더욱 어려워진다.

비록 암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암의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수많은 항암약물이 개발돼 있으나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독성이 너무 강해 암치료를 크게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

저산소 상태에서 성장한다

많은 항암약물들은 배양세포에서는 우수한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나타내나 실제 환자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암이 저산소(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적응했기 때문이다. 암세포는 세포분열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1개의 암세포가 30년 세포 분열하여 10억개의 암세포로 덩어리로 되는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10억개의 암세포는 직경 1cm, 무게 1g의 암조직을 만드는데, 이 정도를 커져야 비로소 임상적으로 암을 진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암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혈관의 생성속도는 이보다 느려서 결국 직경 1cm 정도의 암은 혈관이 부족한 저산소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혈액 산소가 확산되어 각 세포로 공급되려면 세포와 혈관의 거리가 1백μm에서 1백50μm 정도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정상조직은 이 확산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혈관과 세포가 분포하고 있어 산소 전달에 문제가 없지만, 암의 경우 급속한 팽창으로 이 한계범위 밖에 암세포가 존재하게 되어 저산소에 처하게 된다. 또한 암세포에서 급하게 만들어지 혈관의 벽은 매우 얇아 쉽게 고이고 막히게 되어 저산소가 더욱 심화된다.

이러한 저산소 상태에서 암세포는 인

식적으로 성장을 멈추고, 곧 작음하여 저산소 상태에서도 성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저산소에 적응한 암세포는 혈관 생성과 생존 능력이 증가돼 암성장과 암 전이, 그리고 항암치료에 대한 내성의 원인이 된다. 즉 암세포가 저산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암은 더욱 악화된 항암치료가 어려워지며 환자의 예후가 나빠지게 된다.

정상세포에는 HIF단백질 없어

저산소에 적응하여 암을 악화시키는 유전자는 수십 종에 이르는데, 이들 모두가 HIF (hypoxia-inducible factor,

YC-1 물질은

암 악성화의 주범인

HIF단백질

억제하는데 탁월

저산소 유도인자) 단백질에 의해 조절된다. HIF 단백질은 정상 산소 상태에서는 푸로테아좀이라는 단백질 제거 장치에 의해 수분내에 파괴되므로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산소가 되면 단백질이 안정화되어 세포에 속으로 이동하게 되고, 결국 저산소 적응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저산소 적응 유전자 중에는 암을 악화시키는 것들이 있어 결국 HIF가 암을 악화시킨다. 따라서 저산소 상태에서도 HIF가 만들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암이 악화되지 않아 암성장이 줄어들고 치료도 쉬워질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수년 전부터 많은 암연구 학자들에 의해 강조돼 왔으나 정작 HIF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 지금까지 현실성이 없는 허구의 가설에 불과했다. 최근에도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HIF 억제제를 찾기 위해 수천 종의 화합물질을 시도했으나 뚜렷한 효과가 있는 물질을 찾지 못했다. 이 중 몇 가지는 시험관 내에서 HIF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했으나 아직 동물실험에서 항암효과를 증명하지는 못했다. 필자 역시 4년 전부터 HIF 억제제를 찾고 있었으며, 그 결과 YC-1이라는 물질이 HIF를 억제함을 2년 전에 보고한 바 있다.

일찍 YC-1은 혈소판에 작용하여 혈액응고를 방지하는 연구를 시작으로 사용돼 왔었다. 필자는 YC-1이 혈소판 작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HIF 단백질을 제거한다는 것을 2001년 대암 세포에서 발견했다. 그러나 당시 연구는 단순한 기저연구로 생체 실험을 이용한 실험이 아니었고 실제 항암효과를 본 것이 아니었다.

이후 2년에 걸쳐서 동물에 증양을 만들어 YC-1의 항암효과를 조사하게 됐다. 먼저 결립 마우스(nude mouse)에 간암, 위암, 뇌암, 자궁암, 신장암 등의

사람 종양세포를 이식해 암을 유발시켰다. 암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 2주일간 YC-1을 복강주사하면서 지속적으로 암의 성장과정을 지켜본 결과, YC-1을 투여한 쥐에서 암성장이 멈췄다. 특히 간암에서 YC-1의 성장억제 효과가 가장 탁월했다. YC-1은 암의 성장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암조직에서 HIF 단백질들을 사라지게 했으며, 암 혈관 생성도 차단하고 암을 악화시키는 유전자들도 억제함을 관찰하게 됐다. 또한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활성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일반적인 항암제들은 세포독성이 매우 강해 면역세포를 파괴시켜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데 반해 YC-1은 이러한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약물로 여겨졌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세계적인 암 전문 잡지인 JNCI (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미국립암연구소지, 인용지수 = 14.24)에 보고했다.

YC-1 투여한 쥐 암성장 멈춰

HIF를 억제하면 암성장을 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HIF 억제제가 사람에게서 없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본 연구로 인해 실제 HIF 억제제로 암성장이 억제됨이 증명됐기 때문에 앞으로 HIF를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항암제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항암제들은 세포분열을 차단하거나 세포의 사멸을 촉진하는 약물들이다. 그러나 암세포의 세포분열과 세포생존에 필요한 인

기존 항암제들은

암세포 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도

손상시킨다

자들은 정상 세포에서도 똑같이 필요한 인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항암제에 의해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도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항암치료를 치명적인 부작용(면역저하, 골수부전, 설사, 발모 등증)을 겪게 되고 결국 면역적으로 인한 치명적인 체단 감염으로 환자가 사망하게 된다. 그러나 YC-1은 부작용이 매우 적다. 왜하면 정상세포는 HIF가 거의 없는 편이 아니라 HIF가 완전히 없어도 세포생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반면, 암세포는 HIF가 많으며 HIF가 세포생존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HIF를 표적으로 하는 YC-1은 정상세포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HIF를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항암제 YC-1은 암을 치료하는 최적의 조건을



朴鍾完

- 1986년 모교 의대 졸업
- 1988년 모교 대학원 석사학위
- 1990~1993년 육군 대위
- 1993년 모교 대학원 박사학위
- 1994년 모교 의대 약리학교실 전임강사
- 1996년 모교 의대 조교수
- 2001년~현재 모교 의대 약리학교실 부교수

갖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신약 개발 위한 투자가 시급

현재 관찰한 YC-1의 항암효과는 동물실험에서 증명됐기 때문에 실제 인체에서의 YC-1의 항암작용이 검증돼야 한다. 또한 동물에서는 YC-1의 독성이 미약했지만 인체에서는 독성이 어느 정도 나타날지 아직 미지수이다.

이러한 연구를 계속해 YC-1을 항암제로 개발하기까지는 약 5년에서 10년이란 연구기간이 더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YC-1을 항암제로 개발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본 연구를 계속하기 위한 연구비와 연구인력 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신약의 개발은 어느 한 연구자가 실험실에서 이루어질 만한 프로젝트가 아니다. 여기에는 국가 혹은 기업체의 투자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가나 기업체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YC-1 연구를 했느냐 이제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 앞으로 이·적대 연구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적대 연구는 끝이 날 것이다.



좌)간암 대조군, 우)간암 YC-1 투여군.

밖에서 본 서울대, 서울대인

「서울대」라는 이름 석자가 만드는 행복

金道實：金道賢(76년 自然大卒·한국해양기술 대표)동문 여동생

서울대?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다. 10대일 땐 관심 밖의 단어일 뿐이었고 20대일 땐 내가 아는 오빠들이 가는 학교였고 30대일 땐 내 아들을 위해 자리 비워놓고 기다리는 곳이었다. 그런데 40대가 되자 어ไร? 거기가 어디지? 왜들 이래? 이런 생각이 났다.

지금은 오빠를 통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서울대는 정말 좋은 것 같다. 왜냐고? 우리 부모님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오빠가 서울대에 입학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우리 부모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듯 했고 무언과도 비길 수 없이 좋아하셨다.

이시는 분이든 모르시는 분이든 여럿이 모여서 자식, 학교이야기 하기를 좋아하셨고 그럴 때면 언제나 얼굴 가득 자랑스런 미소와 자신만만한 태도로 어깨엔 약간의 힘을 주시고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셨다.

오희는 70년대 그 당시만 해도 생소하던 스킨스쿠버, 한마디로 「머구리」에 미쳐(?) 있었다. 바다가 좋아 바다에 빠져 사는 오희를 부모님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지켜보셨고 (사실은 나도 그런 오

서울대에 입학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모들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빠가 멋지게 보였고, 자랑하고 싶고 은근히 부럽기도 했다) 해양하이 부인지 스킨스쿠버가 무엇인지 부모님은 잘 알지 못했어도 다른 집 아이들이 하지 않는 것을 그걸도 너무나 열심히 한 우물

을 파는 것만으로도 즐겁게 한편으로는
뿌듯해 하시면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셨
다. 아마도 부모님의 그 후원으로 오빠
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30년 넘게 계
속할 수 있었고 그 고집과 개성으로 지
금의 오빠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민과 서울대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분명 좋은 것이 어려서였을 것이다. 오빠가 대학을 갔고 나는 언니와 내가 대학을 가게 됐다. 지방에서 한꺼번에 세 형제가 대학을 다니게 됐으니(그것도 오빠와 언니는 서울에서 나는 부산에서) 등록금, 학숙비, 교통비, 책값, 용돈 등 엄청난 돈을 사들여줄 뻔했다. 얼마만 하냐고 생각되지만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게 주셨던 것은 그거야 바로 서울대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많은 돈을 주시면서도 자식이 부모를 즐겁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며 흐뭇해



하었다. 한번도 힘든 내색하지 않고 기
뻐하게 만드는 그 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70이 넘으신 지금도 서울
대 이야기만 나오면 30년 전 그때와 똑
같이 행복해하신다.

박 성 희
문화산책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IMF사태로 온 나라가 비탄에 빠졌던 게
엊그제인데 어느새 까맣게 잊고 흥청거
리다가 신용불량자 3백만명 시대라는 어
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한 것도 서글프기
만 합니다.

농구선수 허재가 소속된 원주 TG의 '2002 ~ 2003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우승은 이만큼 몸매에 모자람 한해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저어도 제전 그랬습니다. 지난해 9위팀인 TG가 승승장구, 우승했다는 것도 즐기셨겠지만 물려서서어갈만큼인 하계 선수가 갈비뼈에 금이 갈 만큼 전력투구에 우승한 뒤 뒤통이 기뻐하는 끝없는 순간이니까, 심란한 마음을 훌훌 털고 '살아보아졌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프로농구 원년인 97년 소속팀인 기아
코치스태프와의 갈등으로 벤치에 앉아있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시들해지게 마련입니다. 상황이 나쁘면 두 말한 것도 없지요. 그러다 보면 핑계거리가 생기고 결국은 『뜻 같지 않다』거나 『하늘이 안 도와주나 아쩔 수 없지 뭐』 식으로 주저앉기 십상입니다.

허선수의 경우 적당히 몰려섰다고 해도 나무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간의 전적만 봐도 농구선수로서 실력을 발휘할 만큼 했고, TG의 여전상 우승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할 수 있다고 믿고 실제 해내 겁니다.

허선수에 대해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뛰어난 자질을 타고난데다 아들의 천성을 발견하고 밀어준 아버지와 좋은 스승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재주도 결코 닦지 않은

다"고 했습니다. 받고 싶다고 주는 건 아니겠지만 상을 받을 만큼 태도를 바꿨다는 거지요. 이유도 분명합니다. '옛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조만간 지도자도 해야 할 텐데 계속 그런 이미지로 남긴 싶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다.'

잘나가면 짧은 시절,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등 말쑥해나 피운 그가 나이가 주는 진과 무게를 인정하고 앞날을 걱정하는 것이지요. 그는 또 『예전엔 무서운 게 없었다. 지금은 나이 드는 게 좀 무섭다. 그래도 아직은 양복보다 유니폼이 좋으니 더 뛰고 싶다.』고 밝힌다.

저는 코트에서 종합무전 활약하는 허 선수도 좋지만 이처럼 자신의 변화와 그에 따른 현실을 인정하는 허 선수는 더 좋습니다. 정상의 자리를 누르려 한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아닌 걸 인정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한 번 차지한 '자리'를 내놓지 않으며 버둥거리는 것도 그런 까닭이겠지요.

과거 『내 힘으로 우승시킬 수 없으면 미련 없이 유니폼을 벗겠다』던 허선수는 요즘 『뛰든 안 뛰든 후배들과 호흡하는 것 자체가 즐겁다』며 주전이 아닌 시스탤으로도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있음을 내비친다고도 합니다.

이무튼 허선수가 올해 은퇴하지 않음
으로써 내년에도 코트에서 그를 보게 될
습니다.

남들이 뭐라는 자신을 방기하지 않고 지켜내는데다, 나이 들어 개인이 아닌 팀의 힘을 믿고, 선수에서 지도자로 바뀌는데 필요한 요소를 준비할 줄도 아는, 그가랄로 '나이의 힘'을 보여주는 '허재'라는 선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아직은 충분히 살 만하다고 여겨지는 까닭입니다.

농구선수 허재가 가져다 준 기쁨

던 시간이 많던 그는 다음해인 98년 손가락이 부러지고 눈두덩이 찢어지도록 땀으로써 팀의 준우승에도 불구하고 MVP로 뽑혔으로써 「허재의 건재」를 보여 줍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이번에 다시 TG를 우송고지에 올려놓은 것이지요. 우송한 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98년 혈길이영(최혈길부단장)이 정인교와 월리포드를 내주는 출혈을 감수하면서 기아에서 나를 데리고 왔을 때 약속했다. '꼭 우송한다, 두고 보라'고 우송하자마자 그 약속을 지켰다는 생각이 스치면서 울컥했다'

바로 이런 대목이 허선수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게 하는 겁니다. 오기를 오기로 끝내지 않고 심천해내는 노력과 끈기는 아무에게서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각오와 결심, 약속은 누구나 할

면 발현될 수 없고, 아버지와 스승이 제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본인이 감당하지 않았으면 소용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남보다 뛰어나다는 걸 아는 사람의 경우 작은 홀대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수가 많습니다. 화려한 시절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한번 좌절하면 다시 일어설지 못하는 것도 옛 영예를 감쉴는데 시간과 마음을 빼앗겨 정작 자존심을 되찾는데 필요한 인내와 노력은 등한시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때마다 단순히 분노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무서운 노력으로 그것을 되찾곤 했습니다. 98년의 MVP 수상이나 이번 우승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허선수 닥에 기빠진 이유는 또 있습니
다. 그는 이번에 29년 선수생활 중 처음
모범선수상을 받았는데 솔직히 '받고 싶

『우연히 만난 옛친구 혹은 화창시절의
동기가 고관대작 혹은 거부가 돼 몸통과
고 우뚝한 언어를 조종하는 한낱 사인이
우리를 보고 손을 내밀기는 하되 알아보
려 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취할 때, 그
것은 진정 우리를 슬프게 한다.』

『동몽원효의 우리 안에 감춰 초조하게 서성이는 한 마리 범의 모습, 언제 보아도 철책을 봐 왔다갔다하는 그 동물의 번쩍이는 눈, 무서운 분노, 괴로움에 찬 포효, 앞발에 서린 끝없는 질망감, 미친 듯한 순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내없이 슬프게 한다.

독일작가 안톤 쉬낙(1892~1961)의 수필집 『우리들 슬프게 하는 것들』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모두 지금도 우리들 슬프게 하는 일들에 틀림없습니다. 슬픈 일이 어디 없겠습니까. 물론 불행 유독 가슴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어이없고 기막힌 대꾸 지하실 참사는 생각만 해도 속이 울퉁거리고, 전교조와 의 갈등으로 돌아간 교사상생발전의 일은 쓰라리게 돌아옵니다. 편이요.

朴明淵특지장학회

석사과정 2명에게 연구비 전달



좌로부터 김홍섭(특)·朴明淵(특)·朴相民(특)·朴相民(특)

한국최초순연연구소 朴明淵(76년 庚戌年·관악회 이사)이사장은 지난 4월 17일 모교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보건대학원 白南園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3학년도 1학기 '朴明淵특지장학회' 연구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차동문은 차相民(석사과정)·金喜顯(석사과정) 등 2명에게 각각 5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연구비 수여식은 임규연(법)·변태호(사)등이 지난 99년 12월 18일 출연

한 5천만원의 본회에서 관리, 그 동안 발생한 이자로 모교 보건대학원 석·박사 학위 논문 연구제에서 발표자 중 우수 논문게획서를 제출한 동문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기로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캐나다 애드먼트지부

신임 회장에 趙金熙회장 선출



캐나다 애드먼트지부동창회(회장 鄭銀淑)는 최근 애드먼트 한국문화원을 주최한 가운데,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임명되다 통과된 趙金熙(79년 庚戌年)교수(사진)를 선출했으며, 총무에 趙成美(65년 丁未年)동문을 선임했다.

신임 趙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곳에도 곧 한국 문화회관을 설립해 한인 2·3세를 위한 도서관, 연회장, 회의장 등을 만들 예정이며, 각 학인 단체장들이 준비위원회로 구성해 모교문화를 꽃피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특히 준비위원장인 李明九(69년 己未年)동문을 위시한 모든 모두가 큰 힘을 보태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동창회는 46년에 입학하신 동문이 있는 반면 올해 첫 졸업한 후배 동문들도 있어 앞으로 모든 동문의 힘을 모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더욱 활기찬 동창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도네시아지부

골프대회서 농과대학 3연승



인도네시아지부동창회(회장 裴相淵)는 지난 4월 2일 자카르타 Rawamangun에서 4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앞서 개인 및 단체대별로 나눠 치러진 골프대회에서 농과대학이 3연승을 차지하여 '총동창회장 순회배'를 번양으며, 공과대학이 준우승을 기록했다. 개인별 우승은 金龍萬(88

년 庚申年)동문에게 돌아갔으며, 2위에 鄭東奎(74년 乙未年)동문, 3위에 崔景元(77년 丁未年)동문, Nearest이 裴相淵(69년 庚戌年)동문이 각각 선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2002년 사업 및 회계보고와 2003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임원 개선을 통해 연회회장을 유임하기로 했다.

필리핀지부

새 회장에 鄭宗燮동문

필리핀지부동창회(회장 李煥培)는 최근 마닐라 소재 '코리아 가든' 레스토랑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임 회장에 鄭宗燮(66년 丁未年)동문, 부회장에 朴日燮(71년 辛巳年)동문을 각각 선출했다.

또 총간사이 白昌基(80년 庚戌年)동문, 총대 간사이 金重浩(86년 丁未年)동문, 상대 간사이 尹太福(83년 癸未年)동문, 총대 간사이 鄭光錫(88년 戊辰年)동문, 반대·문리대·약대·사대 간사이 李鍾奎(79년 己未年)동문을 선출했다.

한편 동창회는 골프대회 등 매년 정기적으로 5명의 모임을 갖고 있고, 본과대학원 진학 모임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포지부

5월 18일 등산대회

김포지부동창회(회장 金鍾燮)는 지난 4월 14일 김포시에 김포/개성식당에서 총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회원들의 친목과 단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동창회의 역할이 단계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더욱 분발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동창회는 김포지역에서 모교에 입학한 신임생 두 명에게 입학금 기부에 금반지를 전달했으며, 그동안 시에서 진행해 온 지역발전 교육사업에 동문들이 감사로서 적극 참여해온 것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한편 동문간의 친목과 단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 등산대회를 열기로 하고, 오는 5월 18일 첫 대회를 북한산에서 갖기로 했다.

제주지부

신임 회장에 姜景瓊동문 선임



제주지부동창회(회장 文大輝)는 지난 3월 29일 제주대 강로법학우에서 중년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姜昌材(79년 己未年)총무

광주·전남지부

새 회장에 宋彦鍾동문 뽑아



광주·전남지부동창회(회장 李乃均)는 지난 4월 10일 OB백주광주공장 내에서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李承基(76년 丁未年·삼능건설) 대표(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광주·전남 지역 발전을 위한 논의가 있었으며, 새로 동창회에 임한 동문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李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동창회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한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임기를 마치고 되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 아쉽지만 후위 회장에서 동창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믿는다』고 말하고 『동문 모두가 신임 회장을 도와 더욱 단합된 동창회를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이순」테니스회

2인 한 팀 이뤄 노익장 과시

60세 이상 동문이면 누구나 자격이 주어지는 耳順테니스회(회장 金明煥)는 지난 4월 5일 보고관악캠퍼스 교수테니스코트에서 제3회 정기대회를 개최했다.

고희조 회장 A·B조로 나눠 치러진 이날 경기에서 고희조 鄭萬水(48년 壬子)·金明煥(51년 癸未年)동문, 耳順 A조 趙勝賢(49년 己未年)·康炯君(57년 丙申年)동문, 耳順 B조 金正藏(56년 丁未年)·成旭基(57년 丁未年)동문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희조 준우승: 金壽吉(52년 壬戌年)·崔妍媛(55년 庚申年)동문, 3위: 金應熙(39년 己未年)·全銀烈(48년 丁未年)동문, △트립 A조 준우승: 沈載錫(60년 庚戌年)·裴仁河(66년 乙未年)동문, 3위: 高相植(57년 丁未年)·申東章(63년 丙申年)동문, △트립 B조 준우승: 鄭炳錫(50년 乙未年)·文理人(辛)·金行元(56년 丙申年)동문, 3위: 李昌錫(54년 丁未年)·崔圭勇(57년 丁未年)동문.

다음 대회는 한울임인 6월 6일 개최될 예정이다.

본회 신임 회장에 姜景瓊(64년 甲申年·제주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동문(사진)을 선출하고 부회장에 金元元(72년 壬申年·제주대 사회교육과 교수)·梁永澤(69년 乙未年·제주대 영리교육과 교수)·玄公南(69년 己未年·제주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金世澤(76년 丙申年·과의원장)·李惠善(77년 丁未年·家政대 교수)·金富燮(78년 戊申年·제주대 법학부 교수)·姜昌材(79년 己未年·변호사)동문을 선임했다.

신임 姜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여러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창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亨)

생활과학대학

신임 회장에 劉頌玉동문 선임



생활과학대학동창회(회장 李義淑)는 지난 4월 12일 LG강남타워 오라클홀에서 동문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했다.

최희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 동문들이 남성 동문들에 비해 모교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 애착이 덜한 것 같다」며 「앞으로 모교와 동창회에 대한 사랑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며 「당부했다. 또한 「올해 서울대총동창회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모교와 동창회를 빛낸 동문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제5회 관악대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우리

동문 선후배 가운데에도 후보가 나와 동창회의 위상을 높여줄 것」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진 장학금 전달식에서 최희장은 모교 재학생 최은정(의류학과 4년)·이현민(식품영양학과 4년)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劉頌玉(61년卒·한국공공복식연구원장·성관관대 의학과 명예교수)동문(사진)을 신임 회장에 선출했다.

신임 회장직은 취임사를 통해 「여성들이 시집가서 따로 살더라도 전정은 언제나 마음의 고향이듯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동창회 행사가 있는 날에는 고향에 돌아온 기분으로 산후배 동문과 정담을 나누고 스승님을 뵙는 소중한 날로 생각해주길 바라며, 동문들의 힘을 합쳐 동창회를 잘 이끌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최고경영자과정

새 회장에 金正國동문 선출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孫振植)는 지난 4월 9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동문 1백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앞서 李 演 주한 중국대사가 「중국의 발전 및 중·한 관계는 주재로 강연을 펼쳤으며, 이날 행사에서 제3회 「서울대 AMP 자랑스러운 교수상」에 모교 尹鶴齡(63년 文理大卒)교수를 선정, 상패와 함께 1천만원의 지원비를 전달했다.

수상자로 선정된 尹교수는 모교 독어독문학과에 입학했으나 다시 물리학과로 전과, 서울대 총장상을 받으며 졸업했으며, 휴먼리베리아나에서 전기공학 및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 의결에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金正國(65년 法大卒·45기 AMP·문화일보 사장)동문(사진)을 선출했으며, 孫振植전임 회장을 명예회장에 추대하고, 감사에 申廣孝(61년 商大卒·45기 AMP·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李秉宰(69년 經大院卒·19기 AMP·한국문화재단 사장)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신임 김회장은 66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부사장·사장·회장을 역임했다.

상과대학

재학생 40명에게 장학금 지급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朴容慶)는 최근 대평로클럽에서 동문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최우수 졸업자 및 최우수 논문 시상식과 2003년 1학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최우수 졸업자로 경영학과 李城旭군과 경제학부 崔慈媛양이, 최우수 논문상 수상자로 경영학과 朴龍洙군과 경제학부 金宇燦군이 각각 선정됐으며, 특히 최우수 논문상 수상자에게

는 부상으로 디지털 카메라 1대를 증정했다.

이어진 장학금 전달식에서 각특기 및 기금장학금을 낸 동문들이 모교 경제학부 및 경영학과 재학생 4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 5월 1일 홈페이지(www.sangdae.com)를 새로 단장, 「동기 사랑방」, 「총동창회 소식」, 등을 새로 추가했다.

대학원

홈페이지 업데이트

대학원동창회(회장 金圭植)는 지난 4월 18일 모교 연건관 퍼스 임상의학연구소 가운데에서 禹鍾大동문, 모교 李光應명예교수, 단원대학교원장 등 동문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현 김회장을 유임하기로 하고, 현직을 가진 동문들로 부회장 15명씩 구성기로 했다. 안전 심의에서는 정확한 동문 주소 파악과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재로공학부 금속동창회

신임회장에 孟 涉동문

재로공학부 금속동창회(회장 李東事)는 지난 4월 8일 서초동 소재 「회래동」 식당에서 동문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그동안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盧顯容(61년卒·대호산업 대표이사)·李聖熙(64년卒·에스아이에스기술 회장)동문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금속분야에서 활발한 활동과 연구업적을 남긴 金正一(64년卒·동부제강 사장)동문에게 「자랑스런 금속동문상」을 수여했다.

이어진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새 회장에 孟 涉(65년卒·크로마포스트 대표이사)동문을 선출했다.

正義會

5월 16일 홈커밍데이

60~70년대 모교 의과대학 내 기숙사 출신 동문들로 구성된 正義會(회장 李善達)는 오는 5월 16일 오후 7시 모교 연건관과 간호대학 기숙사에서 총합 3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705-6032)

상과대학

5월 24일 임시총회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朴容慶)는 오는 5월 24일 오전 10시 모교 관악캠퍼스 노원극장에서 임시총회 및 동산·경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761-2278)

공과대학

5월 25일 정기총회

공과대학동창회(회장 成眞鎬)는 오는 5월 25일 오전 9시 30분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정기총회 및 기숙동문 등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877-0568)

화학과

새 회장에 張文英동문 뽑아



화학과동창회(회장 金壽子)는 지난 4월 17일 팔레스호텔 코스모스홀에서 張文英초대회장, 모교 朴仁源명예교수 등 동문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石元慶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김회장을 비롯한 權範子(59년卒)·孫煥章(59년卒)·吳世和(65년卒)·李聖雨(68년卒)·朴東根(73년卒)·河貞淑(84년卒)·河潤熙(87년卒)동문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은 1천6백25만원을 「화학과동창회 특기장학회」 기금으로 출연했다.

「화학과동창회 특기장학회」는 지난 1999년 12월 본회에 3천만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기금 장학회를 설립, 그동안 재학생

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오다 1년 뒤인 2000년 12월 14명의 동문이 추가로 3천6백50만원을 출연해 특기장학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번 추가 출연으로 더 많은 재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어 김회장은 동창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한 吳世和·李孝哲(71년卒)동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최우수 졸업상」에 권혁준동문, 「우등상」에 모교 재학생 김진성(4년)·송범수(3년)군을 각각 선정했다.

신입회원 소개와 업무 및 결산보고에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張文英(65년卒)·이건산업 부회장)동문(사진)을 선출했으며, 총무에 李鍾德(81년卒)·이화여대 화학과 교수)동문을 선임했다.

한편 동산동창회인 화동회는 오는 6월 6일과 10월 15일에 동산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날 행사를 후원한 40회 동지회는 성대히 만찬을 준비하고, 참석 한 교도 은사들에게 기념품을 전했다.

한경대학원

黃斗淵통상교섭본부장 특강

한경대학원동창회(회장 丁榮植)는 최근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홀에서 金鍾熙·金載熙·金貽煥·朴重鎬명예회장, 모교 金阿順·楊秉泰·黃琪源교수, 환경부 郭快錫차관 등 동문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회장과 모교 金斗勳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외교통상부 黃斗淵(74년 環大院卒)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외교통상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으며, 주요 경제·통상 현안 및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며 참석자들에게 국제한

경 보존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서 지난 3월 오근한 동창회 홈페이지(gses.snu.ac.kr/gsesa)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동창회 행사에 산 확보가 점차 어려움에 따라 홈페이지 광고를 활성화해 광고수입으로 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모교 장학금 지원은 작년 대비 1백만원이 증가한 6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동창회 소식지 「도시·환경소식」을 연 4회 발간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임학동문회

재학생의 일본실습 지원키로

임학과 및 산림자원학과 동문들로 구성된 수원임학동문회(회장 鄭煥燮)는 최근 종각역 소재 「힐링관」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동문회 활성화와 동문 건강 증진을 위한 등산대회를 매월 네 번째 토요일에 가지기로 하고, 각 기수별 대표와 회장과의 만남의 자리를 연 2회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일본 북해도대학 연합원에서 실습을 할 예정인 모교 학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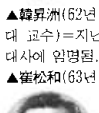
학년생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가진 장학금 수여식에서 鄭煥燮이 설립한 임실장학금으로 모교 재학생 배기찬(3년)군과 대학원 신입생 박지현양에게 등록금 전액을 전달했다. 동문회는 임실장학금 외에 현재 반수장학금 및 한산장학금, 모교 행사를 지원하는 제림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정기총회는 농생대의 관악캠퍼스 이전 일정에 맞춰 개최하기로 했다. (表)



▲崔圭源(59년) 醫大卒·유지의대 부총장)=지난 4월 2일 모전준봉의대 차병원 병원장에 취임함.



▲金秉彦(62년) 文理大卒·고려대 교수)=지난 4월 10일 주미대사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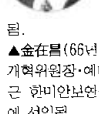
▲金國(63년) 法大卒·모교 법학부 교수)=지난 3월 31일 국무총리 산하인 문화체육관광부 이사장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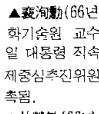
▲韓一勳(65년) 法大卒·아이원애드콘 회장)=지난 3월 28일 대한적십자사 봉사의 중앙협의회 의장에 추대됨.



▲金圭源(65년) 商大卒·대한상공회의소 회장·분회 부회장)=지난 4월 16일 환경보건협회 제11대 회장에 선임됨.



▲金在星(66년) 工大卒·前국방개혁위원장·예비역 대장)=최근 연미안보연구원 제4대 회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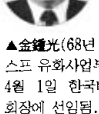
▲金海勳(66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 교수)=지난 4월 16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동북아경제공동체추진위원회의 위원장에 위촉됨.



▲金榮敏(66년) 師大卒·고려대 교수)=지난 4월 1일 국민생활체육 전국골프연맹회 회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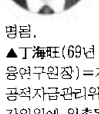
▲金康豪(68년) 工大卒·前한라중공업 사장)=지난 4월 24일 서울지하철공사 사장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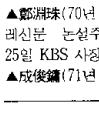
▲金鍾光(68년) 工大卒·한국바스프 유화사업부본부 사장)=지난 4월 1일 한국바스프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됨.



▲李健茂(69년) 文理大卒·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지난 3월 31일 차관급으로 격상된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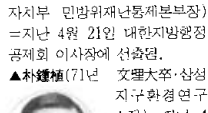


▲丁海旺(69년) 商大卒·한국금융연구원장)=지난 4월 14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비상근 민간위원에 위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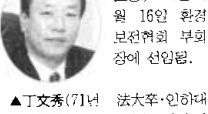


▲鄭鍾味(70년) 商大卒·前한겨레신문(신설주간)=지난 4월 25일 KBS 사장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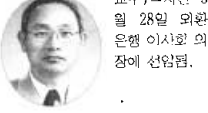
▲安延연(71년) 文理大卒·행정자치부 민방위재단총재(보좌)=지난 4월 21일 대한지방법정공제회 이사장에 선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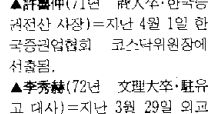
▲金鍾澤(71년) 文理大卒·삼척지구환경연구소장)=지난 4월 16일 환경보건협회 부회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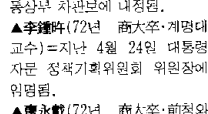
▲丁文秀(71년) 法大卒·인하대 교수)=지난 3월 28일 의환은행 이사회의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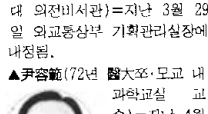
▲許魯仲(71년) 鹿人卒·한국증권선상 사장)=지난 4월 1일 한국증권협회 코스닥위원장에 선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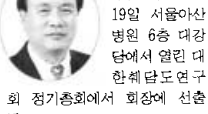
▲李秀赫(72년) 文理大卒·駐유고 대사)=지난 3월 29일 외교통상부 차관보에 내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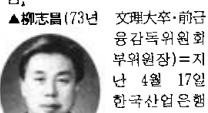
▲李鍾晔(72년) 商大卒·계명대 교수)=지난 4월 24일 대통령상장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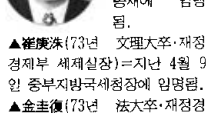
▲鄭永載(72년) 商大卒·前청와대 의전비서관)=지난 3월 29일 외교통상부 기획관리실장에 내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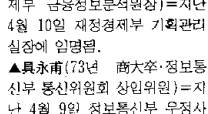
▲尹容範(72년) 醫大卒·모교 내과과학교실 교수)=지난 4월 19일 서울예산병원 6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체담도연구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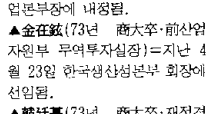
▲柳志昌(73년) 文理大卒·前극음감독위원회 부위원장)=지난 4월 17일 한국산업은행 총재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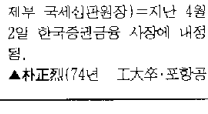
▲崔庚洙(73년) 文理大卒·재정경제부 세제실장)=지난 4월 9일 중부지방재정청장에 임명됨.



▲金圭衡(73년) 法大卒·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장)=지난 4월 10일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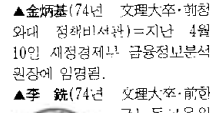
▲具永甫(73년) 商大卒·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상임위원)=지난 4월 9일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에 내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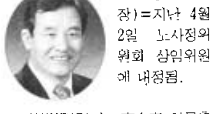
▲金在鉉(73년) 商大卒·前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지난 4월 23일 한국상생발전본부 회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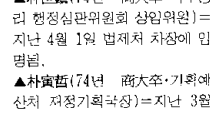
▲金炳基(74년) 文理大卒·前청와대 정책비서관)=지난 4월 10일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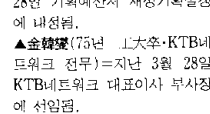
▲李 鎰(74년) 文理大卒·前한국노동교육원장)=지난 4월 2일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에 내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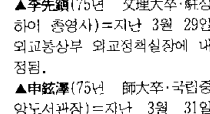
▲朴世鎭(74년) 商大卒·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지난 4월 1일 법제처 차장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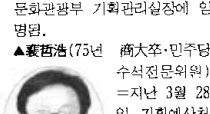
▲朴寅哲(74년) 商大卒·기화에너지 저장기획국장)=지난 3월 28일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장에 내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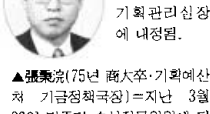
▲金鍾泰(75년) 工大卒·KT네트웍스 전무)=지난 3월 28일 KT네트웍스 대표이사 부사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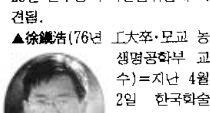
▲李先鎭(75년) 文理大卒·韓상하이 총영사)=지난 3월 29일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에 내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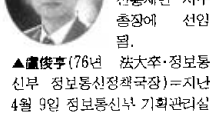
▲申鍾澤(75년) 師大卒·국립중앙도서관장)=지난 3월 31일 문화관광부 기획관리실장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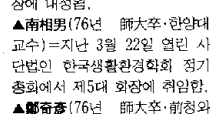
▲裴哲浩(75년) 商大卒·민주당 수석전문위원)=지난 3월 28일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장에 내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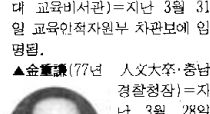
▲張秉浩(75년) 商大卒·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장)=지난 3월 28일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에 파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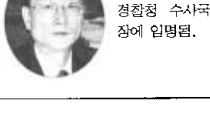
▲徐鍾浩(76년) 工大卒·모교 농생명공학부 교수)=지난 4월 22일 한국학술진흥재단 사무총장에 선임됨.



▲盧俊亨(76년) 法大卒·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지난 4월 9일 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장에 내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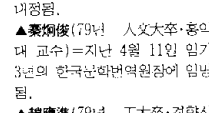


▲南相男(76년) 師大卒·한양대 교수)=지난 3월 22일 열린사 단법인의 한국생물원학회 정기총회에서 제5대 회장에 취임함.



▲鄭壽泰(76년) 師大卒·前청와대 교육비서관)=지난 3월 31일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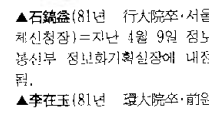
▲李穆烈(77년) 師大卒·산업자원부 무역조사실장)=지난 4월 1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조정 차장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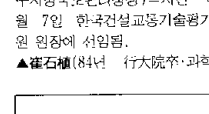
▲李南植(78년) 農大卒·국제대 자연과학대학 학장)=지난 4월 10일 전주대 제9대 총장에 내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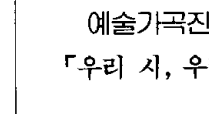
▲秦炳燮(79년) 人文大卒·홍익대 교수)=지난 4월 11일 임기 3년의 한국산학협력위원회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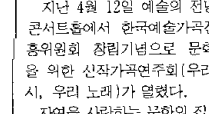
▲趙應準(79년) 工大卒·경향신문 회장·독심자 사장)=지난 4월 16일 독심자생명 회장에 선임됨.



▲石鎭鎭(81년) 行大院卒·서울제1청장)=지난 4월 9일 정보통신부 정보기획실장에 내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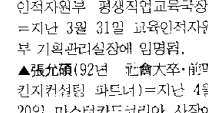


▲李在玉(81년) 農大卒·前임주지방국토관리청장)=지난 4월 7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원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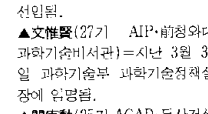


▲崔石植(84년) 行大院卒·과학

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지난 3월 31일 과학기술부 기획관리실장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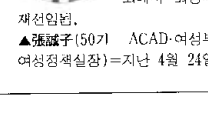
▲李周成(85년) 行大院卒·국세청 기획관리관)=지난 4월 2일 국세청 차장에 내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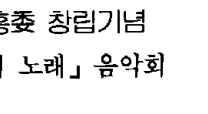
▲金永植(87년) 行大院卒·교육인적자원부 평생직업교육국장)=지난 3월 31일 교육인적자원부 기획관리실장에 임명됨.



▲張允頤(92년) 韓僑大卒·前맥킨지컨설팅 파트너)=지난 4월 20일 마스터카드코리아 사장에 선임됨.



▲文惟賢(27기) AIP·前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지난 3월 31일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에 임명됨.



▲閔庚勳(25기) ACAD·두산건설 회장)=지난 4월 15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건설경제협회의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예술가곡진흥회 창립기념

「우리 시, 우리 노래」 음악회

지난 4월 12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한국예술가곡진흥위원회 창립기념으로 문학을 위한 신작가곡연주회(우리 시, 우리 노래)가 열렸다. 자연을 사랑하는 문화의 집·서울(이사장 金海勳·53년 師大入)과 유원길빌라(사장 文國璣·77년 經大院卒)가 공동 주최한 이날 공연은 문학을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 새로운 가곡을 선보인 뜻깊은 자리가 됐다. 아름다운 가곡이 널리 불리고 가곡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사회에 맑은 기운을 메워주게 하려는 일념으로 지난해 봄에 한국예술가곡진

흥위원회가 발족한 바 있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金南祚(51년 師大卒·시인·숙명여대 명예교수)·金永載(53년 靑大卒·작가·한국음악협회 부이사장)·金孝熙(51년 文理大入·비하·세종문화회관 사장) 등은 통 종친 시인·작가·연주가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제1회 신작가곡음악회를 갖기까지 1년동안 착실히 준비해왔다. 가곡이 팝처럼 등에 밀려 점점 뒷전으로 밀리는 시점에서 이번에도 마련된 행사는 음악계에서도 새롭고 획기적인 일이며, 아름답고도 생동감 넘치는 음악회가 됐다.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위로 서울튜터양상봉 29회 연주회

지난 2월 18일 뜻하지 않았던 대구 지하철 참사는 온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긴 아픔 그 자체였다. 늦게나마 그런 마음을 위로하고자 서울튜터양상봉(이사장 李玉姬·64년 靑大卒)이 제29회 연주회를 마련했다.

한국음악협회·한국문인협회·무직크리파의 공동주최로 5월 14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린 이날 공연에서 시인 金海祚(51년 師大卒)·或

貴慶(57년 文理大)등문이 연시를 낭독했으며, 피아니스트 李玉姬·高麗姬(67년 靑大卒)등문, 바이올리니스트 朴英奎(83년 靑大卒)·金貞賢(84년 靑大入)등문, 비올리스트 姜昌佑(83년 靑大卒)등문, 클라리네트 金東賢(67년 靑大卒)등문, 바수니스트 郭貞善(94년 靑大卒)등문 등이 수배르트, 푸치니, 슈베르트 등의 작품을 함께 선보였다.

(奎)

여성부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초대 원장에 임명됨.

▲金愛良(53기) ACAD·서울시 여성복지장관 정책보좌관=지난 4월 12일 여성부 여성정책실장에 임명됨.

▲鄭鍾煥(3기) SGS·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지난 4월 3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에 임명됨.

▲朴旻圭(3기) APIC·前철도청 차장=지난 3월 31일 한국철도대 학장에 임명됨.

행사·출간

▲柳達永(36년) 水原高麗卒·성 천문포재단 이사장=지난 5월 6일 여의도 라이프오피스 재단 강의를 통해 '북한어린이들이 기다리는'을 개최. 유화작품 60여 점을 선보임.

▲安丙元(50년) 藝大·한국복지재단 토크호출원회장=지난 4월 22~27일 한국언론재단 서울캠프에서 '북한어린이들이 기다리는'을 개최. 유화작품 60여 점을 선보임.

▲宋慶植(55년) 法大·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지난 4월 23일 하얏트호텔 로터스 룸에서 한국국제방언연구원 韓東

準원장을 초청, 「이라크사태가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鄭內曉(56년) 師大·한국광고주협회장·분회 부회장=지난 4월 8~11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세계광고

주연명(WFA) 정기총회에 참석, 아태지역 광고산업 현황을 설명함.

▲南時旭(58년) 文理大·세종대 석좌교수=지난 4월 12일 서울 을지로3가 고담기념관 강당에서 古堂 曹院植선

생기념사업회 초청으로 '북한 핵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강연함.

▲李升煥(59년) 法大·한국가수연맹 사무총장=지난 3월 28일 삼가브에서 열린 서태평양 가스회의(GASEX2004)

운영회의에 참석, 서태평양 지역의 가스산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

▲崔炳西(60년) 韓大·가톨릭대 명예교수·한국오라토리오스 어드 임직감독=지난 5월 15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한국오라토리오스 어드 창단 15주년 기념 제20회 정기연주회를

가짐.

▲李炯均(64년) 文理大·한국신문방송인클럽 회장·분회 부회장·분회 논설위원=지난 4월 29일 한국언론재단

제7회 「한국언론대상」 시상식을 개최함.

▲南誌銘(64년) 侯大院·경산대 교수·한국보건교육협회 회장=최근 3주간의 보건교육자 양성 과정을 이수한 10,

11, 12기생 1백67명에게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을 수여함.

▲樓惠子(66년) 美大·한국언론미술가협회 회원=지난 4월 9~15일 인사동 조형갤러리에서 서양화 40여 점을 출품, 개인전을 가짐.

▲金春子(67년) 美大·한국언론미술가협회 회원=지난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인사동 조형갤러리에서 30여

점의 수채화 작품을 출품, 네 번째 개인전을 개최함.

▲朴仁國(67년) 師大·중국대 대학원장·한국성화회분회장·문화회장은=오는 5월 14~16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문화

관에서 「Discovery and Challenge in Bioscience」를 주제로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 총회 및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姜正模(69년) 農大·경희대 교수·한국비교경제학회(FKI 미디어)를 출간했으며, 「테일러 경제학」(시그마프레스)을 공동 번역 출간함.

▲尹美蓉(69년) 音大·국립국악원=최근 「신동복이 들려온」(한글글)을 47개 도시를 방문, 순회공연을 가짐.

▲黃聖輝(69년) 音大·호서대 교수=지난 4월 7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호서대 뭇 리敦(81년 音大)·許元

淑(81년 音大)교수 등과 함께 「호서대-스위스 베른 음대 교수 교류음악회」를 개최함.

▲張惠容(73년) 美大·청주대 교수=지난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청주 무심갤러리에서 「영(Spirit of Korea)」을 주제로 작품전을 가짐.

▲鄭仁植(78년) 工大·부산 정

안갤러리 대표=지난 5월 10일부터 일주

일 간 대구에서 개최되는 「DA-EGU ART EXPO 2003」에 참가하는 화랑으로 선정됨.

▲朴振(78년) 法大·국회의원=지난 4월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반도의 안전보장 및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한 자료를 모아 펴낸 「박진의 대북외교」(한국경제신문사) 출판기념회를 가짐.

▲李政靜(87년) 音大·가톨릭대 겸임교수=지난 4월 15일 광화문 금호아트홀에서 모차르트, 프랑크, 슈만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가짐.

▲金在美(88년) 音大·수원대 교수·피아니스트=지난 5월 1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동생인 바

이 유리니스트 김정미씨와 함께 「정소년을 위한 클래식」을 주제로 두오 리사이틀을 가짐.

▲金明圭(24기) AMP·한국가스공사 사장=지난 4월 2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국제 천연가스 수입자 회의에

참석, LNG계약의 하역항 규제조항과 이에 따른 분쟁점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金光光(3기) SGS·정인건설 부회장·상명대 겸임교수=최근 상명대 대학원에서 「환경친화적인 골프장 조성을 위한 생태적 평가 연구」논문으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중앙대에서 가정임업, 환경과학원에생물 등 교양강의를 하고 있다.

(정리=安興集기자)

新刊

M&A 최신 사례집2

—諸葛政雄 共著—



대림 I&S 諸葛政雄(72년 商大卒) 부회장이 모교 경영학과崔道成(74년 商大卒)·郭守根(77년 經貿大)교수와 함께 펴낸 국내 M&A 사례집. M&A 사례를 기업이 생명체로서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특성 분석, 경영환경 분석 및 경영전략 분석의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 본다.

또한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과 실패 요인을 파악하고 해주는 종합적인 사례로서, 경영자가 어떤 환경권정을 내려 기업유 망하게 하고 주주들을 통해 매출·교체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도서출판 창세각·값38,000원)

유방암 예방 식이요법

—盧東榮 著—



모교의대 외과학교실 盧東榮(81년 醫大卒) 교수가 미국의학 저널리스트이자 의학박사인 밥 아노트(Bob Arnot)가 쓴 「유방암 예방 식이요법」이란 제목의 책을 최근 번역,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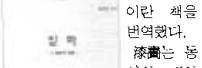
이 책은 유방암이 왜 발생하는지, 음식의 어떤 성분이 유방암의 발생을 억제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미국에서 출판 후 공과 섬유질이 유방암을 막는 약제 역할을 한다는 편견을 불러일으켰다고 해서 미국 법정부까지 가는 등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일조각·값13,000원)

철화

—禹相浩 編著—

모교 미대 강사인 禹相浩(93년 美大卒)등인이 중국 청화대

치아오쓰팡 교수의 「철화 기법과 예술 표현」



이런 책을 번역했다. 漆豪는 동양의 전통 도료인 옻칠을 주요 매체용으로 하여 그리는 그림의 장인이자, 기록에 의하면 옻칠의 사용은 한반도에서는 청동기시대부터, 중국에서는 신석기시대부터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옻칠은 그후 주로 공예분야에 사용했고, 최근에 와서 회화분야에서 흡수해 칠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구축해가고 있다. (대학원·값12,000원)

서울에고, 모교 음대 동문으로 구성된 음악사랑체「뮤직C」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가 5월 21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린다. 플루티스트 金瑞美(85년 音大·모교 강사), 첼리스트 金鎬英(85년 音大·나사렛대 겸임교수), 피아니스트 金秀蓮(85년 音大·성경대 교수)등이 맨델스존, 헨델, 고르너, 베버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세실예술기획 778-6295)



公演

뮤직C 3회 정기연주회

—5월 21일 예술의 전당—

서울에고, 모교 음대 동문으로 구성된 음악사랑체「뮤직C」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가 5월 21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린다. 플루티스트 金瑞美(85년 音大·모교 강사), 첼리스트 金鎬英(85년 音大·나사렛대 겸임교수), 피아니스트 金秀蓮(85년 音大·성경대 교수)등이 맨델스존, 헨델, 고르너, 베버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세실예술기획 778-6295)

公 演

참석, INK계약의 하역항 규제조항과 이에 따른 분쟁점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金光光(3기) SGS·정인건설 부회장·상명대 겸임교수=최근 상명대 대학원에서 「환경친화적인 골프장 조성을 위한 생태적 평가 연구」논문으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중앙대에서 가정임업, 환경과학원에생물 등 교양강의를 하고 있다.

(정리=安興集기자)

▲金光光(3기) SGS·정인건설 부회장·상명대 겸임교수=최근 상명대 대학원에서 「환경친화적인 골프장 조성을 위한 생태적 평가 연구」논문으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중앙대에서 가정임업, 환경과학원에생물 등 교양강의를 하고 있다.

(정리=安興集기자)

▲金光光(3기) SGS·정인건설 부회장·상명대 겸임교수=최근 상명대 대학원에서 「환경친화적인 골프장 조성을 위한 생태적 평가 연구」논문으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중앙대에서 가정임업, 환경과학원에생물 등 교양강의를 하고 있다.

▲金光光(3기) SGS·정인건설 부회장·상명대 겸임교수=최근 상명대 대학원에서 「환경친화적인 골프장 조성을 위한 생태적 평가 연구」논문으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중앙대에서 가정임업, 환경과학원에생물 등 교양강의를 하고 있다.

▲金光光(3기) SGS·정인건설 부회장·상명대 겸임교수=최근 상명대 대학원에서 「환경친화적인 골프장 조성을 위한 생태적 평가 연구」논문으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중앙대에서 가정임업, 환경과학원에생물 등 교양강의를 하고 있다.

▲金光光(3기) SGS·정인건설 부회장·상명대 겸임교수=최근 상명대 대학원에서 「환경친화적인 골프장 조성을 위한 생태적 평가 연구」논문으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중앙대에서 가정임업, 환경과학원에생물 등 교양강의를 하고 있다.

▲金光光(3기) SGS·정인건설 부회장·상명대 겸임교수=최근 상명대 대학원에서 「환경친화적인 골프장 조성을 위한 생태적 평가 연구」논문으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중앙대에서 가정임업, 환경과학원에생물 등 교양강의를 하고 있다.

▲金光光(3기) SGS·정인건설 부회장·상명대 겸임교수=최근 상명대 대학원에서 「환경친화적인 골프장 조성을 위한 생태적 평가 연구」논문으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중앙대에서 가정임업, 환경과학원에생물 등 교양강의를 하고 있다.

▲오호원 ▲유광식 ▲유연수 ▲유인태 ▲유민준 ▲유용식 ▲유희기 ▲이광호 ▲이규철 ▲이대영 ▲이병대 ▲이상직 ▲이정현 ▲이영배 ▲이정수 ▲이진국 ▲이민숙 ▲임창근 ▲임태준 ▲임한준 ▲임한조 ▲장기호 ▲장문호 ▲전병식 ▲정광화 ▲정세현 ▲정익성 ▲조갑숙 ▲조진경 ▲조호래 ▲전종일 ▲최민숙 ▲최종명 ▲최태희 ▲하기호 ▲한정인 ▲홍승호 ▲황성철 ▲황재운

◇美術大學

▲강신숙 ▲강현덕 ▲고승혜 ▲구 성형 ▲구성호 ▲권혁복 ▲강진희 ▲김용환 ▲김지열 ▲김해림 ▲민진경 ▲박근자 ▲박종진 ▲박승호 ▲비해영 ▲신현경 ▲유연식 ▲이길종 ▲이은경 ▲이준민 ▲장성란 ▲장영준 ▲조혜윤 ▲정옥경 ▲지정화 ▲재윤정 ▲최동진 ▲최성란 ▲한정미 ▲허경숙 ▲최지연

◇法科大學

▲고현석 ▲구지희 ▲권세진 ▲권영로 ▲권오승 ▲권혁중 ▲김기태 ▲김경연 ▲김정호 ▲김기정 ▲김기백 ▲김대희 ▲김도현 ▲김동국 ▲김동철 ▲김보근 ▲김성국 ▲김성호 ▲김용근 ▲김민일 ▲김재락 ▲김진태 ▲김정우 ▲김종환 ▲김지수 ▲김광대 ▲나경식 ▲남계호 ▲류근식 ▲박 철 ▲박광기 ▲박수복 ▲박영아 ▲박종현 ▲박재현 ▲박정수 ▲배기민 ▲배석림 ▲변용재 ▲변우호 ▲서동원 ▲서재국 ▲석광호 ▲서시웅 ▲송기산 ▲송세민 ▲송민중 ▲신병중 ▲안우호 ▲안상수 ▲안성환 ▲이재호 ▲양승국 ▲양상현 ▲여상준 ▲오석구 ▲오세인 ▲오영삼 ▲유재환 ▲유승환 ▲유영환 ▲유용근 ▲유인태 ▲이근우 ▲이성진 ▲이수경 ▲이승환 ▲이영미 ▲이용희 ▲이종환 ▲이진배 ▲이진현 ▲이재주 ▲이종수 ▲이태희 ▲임홍근 ▲장민규 ▲장민진 ▲전연숙 ▲전영준 ▲전수희 ▲전필식 ▲정대철 ▲정한국 ▲조영근 ▲조영태 ▲조영수 ▲조영준 ▲조영우 ▲조화연 ▲차동민 ▲최복국 ▲최복기 ▲최선영 ▲최선숙 ▲최영도 ▲최원영 ▲최종영 ▲최정준 ▲하재환 ▲하완진 ▲한강현 ▲하영희 ▲허근영 ▲한남 ▲한희환

◇師範大學

▲강대웅 ▲강재준 ▲강진조 ▲강태환 ▲강학수 ▲고경순 ▲구희호 ▲구지현 ▲국철호 ▲김경희 ▲김경명 ▲김기영 ▲김국환 ▲김민환 ▲김상대 ▲김상욱 ▲김성준 ▲김승관 ▲김영국 ▲김정숙 ▲김정민 ▲김근수 ▲김주현 ▲김종민 ▲김철진 ▲김태영 ▲김한수

▲김희숙 ▲나병소 ▲나정일 ▲노경주 ▲노경진 ▲박병익 ▲박상우 ▲박승수 ▲배성준 ▲서동원 ▲신창환 ▲안성준 ▲안지연 ▲오성준 ▲오수환 ▲유영수 ▲유상근 ▲유영호 ▲유진태 ▲이경희 ▲이기중 ▲이병철 ▲이도영 ▲이동식 ▲이민우 ▲이문자 ▲이미선 ▲이민형 ▲이성규 ▲이성민 ▲이석호 ▲이성규 ▲이성영 ▲이수철 ▲이영문 ▲이완선 ▲이용재 ▲이유식 ▲이인성 ▲이정태 ▲이정희 ▲이준희 ▲이종수 ▲이준영 ▲이태웅 ▲이형준 ▲이환기 ▲임기남 ▲임성택 ▲정병기 ▲정윤정 ▲정대현 ▲전종현 ▲정규우 ▲정영진 ▲정일섭 ▲정찬우 ▲정희숙 ▲조영준 ▲조규환 ▲조동성 ▲조동태 ▲조희환 ▲조희민 ▲최규정 ▲최종우 ▲추병환 ▲최태경 ▲한석숙 ▲홍문표 ▲홍종립 ▲최정국

◇商科大學

▲강용식 ▲강종기 ▲강준구 ▲강창원 ▲곽대우 ▲권현우 ▲김광준 ▲김기주 ▲김대준 ▲김성경 ▲김경남 ▲김정민 ▲김태희 ▲김태희 ▲남이현 ▲민정호 ▲민병태 ▲박우영 ▲박태호 ▲배성호 ▲백정기 ▲손승준 ▲송성관 ▲송근기 ▲지기병 ▲신영일 ▲양기정 ▲양상진 ▲양영환 ▲임도명 ▲오정환 ▲오진석 ▲유 영 ▲유영환 ▲유근기 ▲윤석하 ▲윤준 ▲이관재 ▲이병선 ▲이연배 ▲이영인 ▲이준철 ▲이준영 ▲이재현 ▲정정태 ▲조동민 ▲조현문 ▲최기익 ▲하국영 ▲한민희 ▲황국학

◇生活科學大學

▲김성진 ▲김수환 ▲김민호 ▲민미리 ▲박민희 ▲서혜리 ▲예진희 ▲오인환 ▲오현숙 ▲이정하 ▲이선영 ▲이성란 ▲이은경 ▲이혜성 ▲임희재 ▲조혜옥 ▲최기연 ▲최선희 ▲최원정

◇獸醫科大學

▲권혁부 ▲김계환 ▲김동환 ▲김병태 ▲김성준 ▲박영환 ▲손태영 ▲신상익 ▲신현정 ▲염기선 ▲이만철 ▲이기정 ▲이삼수 ▲이성관 ▲이성환 ▲정영진 ▲최원우

◇藥學大學

▲김광수 ▲김광식 ▲김광우 ▲김기덕 ▲김영준 ▲김진철 ▲맹민영 ▲박순국 ▲방근수 ▲배대성 ▲배영인 ▲배유상 ▲서성수 ▲서규석 ▲송기환 ▲신현조 ▲신관석 ▲인연이 ▲유 선 ▲이성수 ▲이준희 ▲정인우 ▲정주일 ▲조관영 ▲조지영 ▲조태성 ▲지대영 ▲천복남 ▲최희식 ▲한기환 ▲홍복선

◇音樂大學

▲장정숙 ▲장지훈 ▲권원철 ▲권영희 ▲김경희 ▲김영숙 ▲김정희 ▲김종욱 ▲김지훈 ▲김진산 ▲박경자 ▲박노경 ▲박영자 ▲박준영 ▲배은경 ▲박해숙 ▲변종호 ▲봉혜숙 ▲서은진 ▲성기영 ▲송영국 ▲신인철 ▲안소희 ▲안혜선 ▲오광호 ▲오유진 ▲유은숙 ▲이경미 ▲이병희 ▲이성원 ▲이수철 ▲이영아 ▲이재현 ▲이재민 ▲이종수 ▲이지원 ▲전우진 ▲정문자 ▲조가현 ▲조요원 ▲주원정 ▲최영숙 ▲최은진 ▲정성택 ▲한기세 ▲함현태 ▲홍성선

◇醫科大學

▲강은식 ▲고경룡 ▲고은성 ▲고준태 ▲김기환 ▲김나균 ▲김동진 ▲김정길 ▲김영인 ▲김은식 ▲김익태 ▲김정우 ▲김정현 ▲김진희 ▲김진욱 ▲김창현 ▲김철수 ▲김영규 ▲노병택 ▲류병지 ▲박경희 ▲박규환 ▲박성규 ▲박순태 ▲박인희 ▲박우수 ▲박준식 ▲박태선 ▲성경원 ▲안현영 ▲안지석 ▲유병환 ▲유영석 ▲이정훈 ▲이명우 ▲이병길 ▲이성구 ▲이영성 ▲이윤우 ▲임수덕 ▲임진희 ▲임환철 ▲정준목 ▲전혜원 ▲정영미 ▲조두영 ▲조병재 ▲조원우 ▲차 학원 ▲차인호 ▲최용성

◇齒科大學

▲장신구 ▲장덕성 ▲김동환 ▲김철현 ▲김성진 ▲김영성 ▲김영환 ▲김종성 ▲김정원 ▲김종환 ▲김정영 ▲김원희 ▲김태성 ▲김희규 ▲김태준 ▲나호준 ▲박근국 ▲박선영 ▲박준환 ▲박준태 ▲박희준 ▲신상익 ▲안성모 ▲안영두 ▲양희택 ▲윤정배 ▲유상민 ▲유동수 ▲이교인 ▲이규순 ▲이동근 ▲이명재 ▲이상재 ▲이성호 ▲이병남 ▲이영애 ▲이종팔 ▲이종호 ▲이진근 ▲이현순 ▲장환진 ▲전병준 ▲정지영 ▲조진수 ▲주영숙 ▲최규준 ▲최희재 ▲최수광 ▲최희영 ▲최희규 ▲최정환

◇大學院

▲고병순 ▲권영신 ▲권오기 ▲김남준 ▲김성석 ▲김영우 ▲김종일 ▲문재석 ▲박준준 ▲박병환 ▲박민수 ▲박준수 ▲손병익 ▲손정환 ▲송동환 ▲이유갑 ▲이재봉 ▲임근환 ▲임종현 ▲정성모 ▲정희선 ▲정재준 ▲조찬성 ▲조현영 ▲재의업 ▲최 현 ▲황영호

◇經營大學院

▲권영진 ▲김재환 ▲이주성 ▲최종우 ▲한영환

◇教育大學院

▲김정희 ▲장무익

◇保健大學院

▲기호일 ▲김정준 ▲노재영 ▲노태영 ▲민정기 ▲박광우 ▲서석관 ▲송진태 ▲이정지 ▲정성조 ▲정영환 ▲홍수정 ▲홍수현

◇司法大學院

▲이재춘

◇官廳情報科大學院

▲김민태 ▲이정자

◇行政大學院

▲김병규 ▲김은원 ▲김정중 ▲배인일 ▲삼근태 ▲원희영 ▲윤종화 ▲이병길 ▲임종섭 ▲장동원 ▲장승태

◇環境大學院

▲고성하 ▲김기수 ▲김배환 ▲김정식 ▲김정길 ▲김영인 ▲박경자 ▲박정환 ▲박윤철 ▲이종일

◇최고산업전략과

▲고영하 ▲곽문연 ▲김복근 ▲김대웅 ▲김희근 ▲박광현 ▲박부서 ▲박인선 ▲박종호 ▲박한진 ▲서정우 ▲정 명 ▲양종영 ▲오성열 ▲원석동 ▲유승철 ▲이기환 ▲이성호 ▲이재식 ▲이재욱 ▲이재환 ▲이종대 ▲이찬경 ▲이천우 ▲이종갑 ▲이종숙 ▲조원우

◇국가정책과

▲김병철 ▲김부근 ▲김성현 ▲김순진 ▲김재진 ▲김재호 ▲김종식 ▲명영남 ▲박선민 ▲박인복 ▲박기환 ▲신현태 ▲이정남 ▲안기환 ▲유환호 ▲이달환 ▲이성우 ▲이영숙 ▲이정주 ▲이정재 ▲이태희 ▲정시재 ▲정원민 ▲정현근 ▲조진형 ▲최정환

◇고급금융과

▲강세환 ▲강태호 ▲고경인 ▲고관식 ▲곽동기 ▲김원태 ▲김희현 ▲김종기 ▲박진석 ▲서종태 ▲윤성식 ▲이남근 ▲이승연 ▲이재환 ▲임상원 ▲정지위 ▲전민수

◇도시환경위생정책과

▲고재일 ▲권오신 ▲김경기 ▲김호철 ▲박준호 ▲서경주 ▲송현구 ▲윤정석 ▲이창구 ▲임병수 ▲정진숙 ▲조상재 ▲조복일

◇가정간호수습과

▲김현희 ▲박희실 ▲조외숙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김관섭 ▲김동훈 ▲김홍선 ▲박덕수 ▲이성호 ▲하영일 ▲하복일

◇보건의료정책관리자과정

▲권차남 ▲김진돈 ▲송성진 ▲신혜원 ▲오대규 ▲윤호경 ▲이정희 ▲정성호 ▲하덕성

◇해양정책학과

▲장성호 ▲정종수

◇정보통신방송정책과

▲곽우현 ▲김기환 ▲김나준 ▲김상배 ▲김상준 ▲김재수 ▲김정수 ▲김주연 ▲문병연 ▲박실성 ▲변수익 ▲서인석 ▲원병선 ▲이국재 ▲이재현 ▲이시영 ▲이정수 ▲이정재 ▲임윤호 ▲임정규 ▲정수복 ▲정재관 ▲정성환 ▲조창희 ▲최광원 ▲최동식 ▲최우섭 ▲한병진 ▲한성진

분담금

◇인도네시아지부 (500\$)

◇태국지부 (500\$)

◇오스트리아지부 (500\$)

◇자이로동점 (11,000\$)

12월계 : 29,489,230원
2002년 총계 : 741,719,516원
+2,000\$

1~3월계 : 17,525,494원
일회비 : 1,160,000원
총 계 : 18,685,494원
+12,500\$

PDF & E-book Design HANWOORISIM
(지면권으로 최고경영자과정 회비 납부한 분은 다음으로 게재합니다.)

“동창회 국민패스카드, 지금 신청하세요”

(2002년 12월~2003년 2월 발급 회원 명단)

개 인

◇人文大學

▲이숙희

◇自然科學大學

▲노찬규

◇看護大學

▲이은미

◇經營大學

▲김태환

◇工科大學

▲박광환

◇農業生命科學大學

▲이시규 ▲장영준

◇文理科大學

▲이정명

◇師範大學

▲이재희 ▲한종태

동문의 소리

아이에게 박수칠 준비 되셨나요?

宋吉蓮(78년 蜀漢大卒)심리학 박사·응용발달심리연구센터 소장



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아이는 혼자서도 알아서 잘 하지만 다른 아이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번 가르치면 알아서 하는 아이도 있지만

부모노릇 할 만 하신가요? 말하기 어려운 정도로 힘들지요! 그런데 아이들도 자식노릇 할 줄 모르는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중에서도 잔란(?) 사람을 부모로 둔 아이들은 더 많이 들지요. 왜냐하면 편안해서는 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없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공부에서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학업시절 공부하는 습관은 평생 할 것 같은 서울대 나온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전경의 대

상이자 부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울대 나온 부모님들은 대부분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혼자 알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분들이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거나 잘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나온 부모님들은 서울대에 들어오기까지 뛰어난 능력뿐만 아니라 다재능의 박수(최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인정하셔야 합니다.

박수는 어떤 행동을 제대로

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정보이며 동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박수 받은 행동은 더 잘하게 되지요. 믿고 박수 쳐준 주위 분들 특히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서울대 입학이 가능했을까요?

아이들은 원인이 다르듯이 지적능력, 흥미, 적절한 학습방법, 성격특성 등도 모두 다릅니다. 내 아이라고 해서 아이 특성에 맞는 교육과 학습동기를 갖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같은 것에 관

하나를 아는데 여러 번의 설명이 필요한 아이도 있습니다.

우리를 아이가 이 중의 어떤 아이든 자녀를 낳는다는 다른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고 필요한 순간마다 관심을 가지고 박수를 쳐줄 수 있다면 아이들은 어떤 분야에서든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못했을 때 지적하기보다는 잘하고 있을 때 인정하고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성공적인 자녀양육 비결 중 하나입니다. 알고 계시죠? 대동명에서도 박수가 필요하다는 거!

박수칠 준비는 돼있는데 잘하는 것이 안 보인다고요? 마음의 눈으로 아이의 행동결과 뿐만 아니라 의도까지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아이도 애초에 있음을 알아주세요.

해외에서만 당당한 국내 기업들

崔弘洙(86년 社會大卒)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싫다는 「기계적 평등주의」와 속마음과 겉 안장이 다른 「표리부동」이 만연한 사회에선 기업하기 어려웠다」고 고백했다. 그러는 사이에 산업공동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산업공동화가 되면 나라의 미래가 없고,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도 공멸할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30여 개 국가에 해외출장을 갔는데 그때마다 느낀 점이 있다. 그것은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생각해 주는 존재가 아니라 삼성·현대·LG 같은 기업들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5천년 역사와 민주화 투쟁에 대해 외국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최근에 북핵 문제가 부각되면서 「북한」과 「김정일」이라는 단어를 조금 알고 있는 정도다.

그런 외국인들도 휴대폰을 만드는 삼성, 자동차 회사인 현대, 에어컨 시장을 휩쓰는 LG에 대해서는 꽤 알고 있으며, 이들이 한국회사란 사실도 대부분 알고 있다. 우리 나라의 모

든 분야를 통틀어도 가장 국제경쟁력을 지닌 분야가 바로 기업들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그렇게 세계무대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는 기업들이 웬지 국내에서는 잔뜩 주눅이 들어있다.

본식외계다. 불법상속이다 해서 당국에 적발된 기업인들에 대한 세간의 눈길은 차갑고 지독하다. 「도둑놈」이란 비난이 예외 없이 뒤따른다. 온갖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기업들을 몰아 붙인다. 정당한 분석도 없이 IMF시대의 책임도 모두 기업들에게 뒤집어씌운다. 지성인 사회에서도 대중 제벌 체제를 비판해야 의식이 있다는 취급을 받는다.

알잖아, 흠, 적절한 학습방법, 성격특성 등도 모두 다릅니다. 내 아이라고 해서 아이 특성에 맞는 교육과 학습동기를 갖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같은 것에 관

우리 기업들은 그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틈만 나면 외국으로 거점을 옮길 생각을 하고 있다.

해외로 진출한 어느 기업인은 「잘났거나 잘사는 놈은 물고기

한국에서는 종종 기업의 존재 목적을 착각하고 있다. 대학생들도 「사회봉사」나 「교육유지」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경영학에서 정답은 「이윤추구」다. 기업이란 수익 창출에 주력하면서, 자연소재 주변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존재다. 돈 못 버는 기업이야말로 사회적 약력이다. 그러기에 재벌이나 기업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만 조율해 수습하면 된다. 편히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된다.

조그마한 외국기업 하나를 유치하려고 기관장이 공항에까지 나와 우산을 받쳐주고 외국기업인을 반기는 영국의 사례를 배울 만하다. 그들이 「무나아(無頼)」여서 그렇게 할까, 아니냐. 선진강국들은 오늘날 「최고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그렇게 실천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은 배가 부른 것 같다.

「게임」 통해 세대간 대화 넓히자

鄭永濤(8기 APICP)한국게임산업개발원 원장



변화는 기성세대와 신세대간의 가치관의 충돌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모 암송에서 1020세대, 3040세대, 5060세대간의 토론회를 연 것을 본 적이 있다. 토론회에 김이 돌입할수록 사회에서 나타나

언제부터인가 「봄」을 잊고 지낸 것 같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들녘, 봄나를 깨는 아나네를, 눈에 모든 심는 농부들·등기생대들이 느껴 왔던 봄의 풍경이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으며, 가슴 한구석에 갈수록 남겨져 있다. 이것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지구온실효과의 영향으로, 우리 나라도 환경적으로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있는 데 기인하기도 하지만, 특히 도시생활에 몰려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과거부터 보이었던 봄의 느낌을 만끽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있기 때

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게임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오감을 즐겁게 하고 있는데, 가상현실기술을 통한 체험형 게임의 등장은 게임 속에서 실제와 비슷한 봄을 만들어 내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렇듯 IT기술과 게임 등 관련산업 발전은 도시화된 대다수의 셀러리맨들의 마음속에서 봄을 깨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기술의 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비슷하게 모양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현실세계에서 보이었던 따뜻한 봄의 햇살까지를 만들 수 없다.

는 소위 「세대차이」의 골이 매우 깊음을 체감할 수 있었으며, 토론회 말미까지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말하고 있었다. 토론회를 보고 나서 사회가 정보화, 과학화 도전에 따라 오히려 세대간의 벽은 깊어질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웠다.

우리 나라의 시조인 「단군」은 「홍익인간」을 국가의 근본 이념으로 했다. 정보제일주의가 아닌 사람을 근간으로 국가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화혁명의 기술확보가 아니라 가족구성·조직상하·세대간에 대하여 더욱 필요한 것 같다. 아울러 세대간의 의사소통의·도구로 「게임」과 같은 문화산업이 연결고리가 됐으면 한다. 세대간 대화를 통해 기성세대와 신세대간의 화합의 「봄」을 맛을 낼을 기다려 본다.